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죽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25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617.739.2663 / www.kcboston.org

홍보출판위원 : 김원희, 김한나, 서재영, 이재혁, 이지나, 정유미, 윤경문 목사
표지 디자인 : 배광현

사순절 묵상집 2021



기도하는 다니엘

이영길 목사

바벨론 각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 왕께 앞으로 삼십일간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 절하는 자들을 사자굴에 넣게 하는 법령을 제정토록 아뢰고 이에 허락을 받습니다. 이를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뒷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물론 이를 빌미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사자들에게 상처하나 받지 않고 도리어 다니엘을 포함한 자들이 사자들의 밥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과연 무엇을 위해 기도드렸을까요?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위해 기도드렸을 줄 압니다. 그런데 매일 세번씩 기도드리는데 이 기도제목만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다리오왕의 세 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바벨론 왕국을 위해서도 기도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빼 놓을 수 없는 것은 온 세계 인류를 위해 기도드리지 않았을까요?

한국이 어려울 때 김용기 장로님께서 가나안 농군학교를 운영하셨습니다. 농군학교에 기도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놓으셨다고 합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우리도 세 가지 기도를 드려야 할 줄 압니다.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또다른 조국 곧 미국을 위해서, 그리고 온 세계를 위해서….

한국과 미국과 온 세계를 향하여 외치며 사순절 기도 제단을 쌓으십시오.

올해도 수고해 주신 홍보위원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의 노래

주정대 집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7)



내 절망의 검은 가지 끝 핀

아픈 꽃 한송이

당신은 나를 위해 몸 버려

피 흘려 죽었건만

나는 당신을 위해 무엇을했나

생각할수록 죄스럽고 부끄럽구나

알게 모르게 지은 내 죄가

차고 넘쳐

이 마음 괴로움에 헤매고 있음을

그 누가 알까 마는

예수 공로 힘 입어 죄사함 받고 보니

고독하게 외로웠던 내 영혼

위로 받을 길 찾았네

당신은 진정

내 절망의 검은 가지 끝에 핀 꽃이요

우리들의 희망의 노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을 이기신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포기하여 모든 것을 얻으신 주님처럼 저희도 희망의 찬가를 부르게 하옵소서, 아멘.



2/18 (목)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쁨

전은영 집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

제 아버지께서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으십니다. 참 선하시고 올바르게 살아오셨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굳이 뭐 내세의 삶까지 사냐고 이 땅에서의 삶으로 충분하다 하십니다. 그런 아버지가 구원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건 참 쉽지 않았습니니다. 사실 저 자신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지만 그것은 대부분 지금 제가 살아가는 삶에서 누려지는 것들이지 하늘나라 그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구원이니 하늘나라니 하는 얘기를 했다 해도 아마 그리 설득력있게 다가가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작년에 많이 편찮으셨습니다. 119를 부르는 일도 있었고 응급실도 몇 번을 가셨습니다.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니다. 정말 마지막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저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 아버지가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시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데려가시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이 세상을 떠나시게 해달라고요. 아마 그렇게 해서라도 아버지를 낫게 해주시길 바랬던, 저의 짧은 생각으로 짜낼 수 있었던 하나님께 드리는 저의 마지막 간구였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 어느때보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를 하늘나라에서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정말 많이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어도 하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어느때보다 더 큰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제 아버지 또한 누리셨음 좋겠다는 생각을 간절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아버지는 좋아지셨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많은 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무엇보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산다는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더 감사했습니다. 지금 저는 다른 어느 때보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 친구, 교회 그 모두를 하늘나라에서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같은 자에게 이런 기쁨과 소망 그리고 간절함을 갖게 해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더 자주 더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께서도 그러한 기쁨과 소망을 누리셨음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보스톤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허락하신 하늘나라의 축복을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그리고 그 삶이 끝나서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저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승리

김원희 집사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마가복음 1: 12)



2/19 (금)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나서는 곧 성령에 의해 광야로 보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겪었던 고통과, 사탄에 의한 시험을 받고 난 후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 예수님께서 힘들었던 광야에서의 시간을 보내신 것을 생각해 보며 저 자신을 반추하게 됩니다.

요즘 마가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인간 예수에 대해서 다시금 알아 가고 있습니다. 문득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광야에서 사십 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며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는데 왜 예수를 광야에 몰아내셨는가?

여러 설교, 성경 해설집들을 찾으며 가장 저에게 와 닿았던 해답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과 함께 저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안에 예수님처럼 미천한 저희들도 능히 사탄의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라 합니다. 스스로 본인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그것을 능히 이김으로써 본보기를 보여주셨고 또한 저의 시험당함을 능히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작으나마 저에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시험이 저에게 감당할 수 있는, 저를 더욱 더 강하게 하는 시간이라 생각이 듭니다. 광야에서의 힘든 시간을 예수께서는 언제가 끝인지 모를 시간 동안, 힘든 시간을 능히 이김으로써 저희들 또한 사탄의 시험을 이길것이라 믿습니다.

미천한 저희가 감당할 시험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쓰임에 맞는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정은아 집사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15)

2019년 여름방학 세 아이들이 친구집으로 흩어져 슬립오버를 가버리는 바람에 남편과 내가 900 스퀘어밖에 안되는 작은 집에서 목소리가 울릴 만큼 고요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의 무릎이 심하게 아팠던 때라 나가지도 못하고 결국은 스낵 봉지를 쥐고 티비 앞에서 정말 오랜만에 단둘이 앉아 드라마 한 편을 시작했지요. 24회니까 꼬박 한 달을 애국심에 활활 불타며 보았던 드라마. 첫날 네 편을 연속으로 보다가 결국 아이들까지 끌어들였고 잘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에 (사실은 한꺼번에 다 보면 진짜 눈 밑이 시커매지는 폐인이 되니까...) 딱 한 회씩만 보느라 애를 썼고 한 회가 끝날 때마다 오른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텔레비전을 껐는데 그 모습은 사뭇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모양과도 같았다고나 할까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하게 만든 정말 우리 가족의 인생 드라마였습니다. “미스터 선샤인” 조선말 일제 침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의병들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인물들이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창작된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데 이 모든 이들을 두 부류로 나누자면 나라를 팔려는 자와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자입니다.



나라를 팔려는 자들의 삶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다 망해가는 조선인 너나 하라며...동지를 배신하고, 힘과 권세에 팔아 넘기고, 지조도 없이 나만 잘 살면 그만인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마지막까지 보여주다가 아무도 동정하지 않고 거둬주지 않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자들의 삶의 주인은 조선이었습니다. (한나라의 임금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테고, 난 그 조선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드라마를 시청했더랬습니다). 비록 망해가는 조선이지만 그런 나라를 구하고자 목숨을 바치고, 비록 조선이 나를 지켜주지 못해도 지켜주지 못하는 그 뜻을 헤아리겠다며 강대국의 보호를 거절하고 한 번 뜨거웠다 지는 불꽃 같은 인생을 선택하는 의병들은 결국 각기 다른 모양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죽음은 의미가 있고 많은 이들에게 뜨겁고 강한 힘과 도전을 주게 됩니다.

드라마를 보는 내내 떨쳐 버릴 수 없었던 생각, 나와 내 가족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였습니다. 이방 나라에 팔려가 노예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길 힘썼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각 길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며 순교의 길을 택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드라마 속 의병들에 대입해 보았습니다. 맞아떨어지는 공통점은 인생의 주인을 나로 삼지 않고 주(조선과 임금, 하나님) 로 삼았다는 것이었고 그 부분이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며 최고로 감동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게 이 풍파 많은 세상에 뭐 그리 쉬운 일일까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여나 내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며 내 인생의 주인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작정하였습니다. 나와 내 가족은 이 드라마를 마치며 큰 교훈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

내 인생의 자리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천국가는 그 날까지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의지와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이영길 목사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시편 84:1-12)

2/21
(사순절 첫째주일)

예루살렘은 왜 성지가 되었을까요?

다윗이 나라가 강성해진 다음에 교만해졌습니다. 이제 자기 나라가 얼마나 강국이 되었는지 알기 위해 인구 조사를 시킵니다. 이에 요압 장군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백 배나 더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하면서 인구 조사를 말합니다. 그래도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금방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습니다. 이에 대한 벌을 받게 됩니다. 그 전염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때 갖이라는 선지자의 권유를 듣고 어느 집 타작 마당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곧 전염병이 멈추게 됩니다.

이 곳에 바로 후에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다윗이 태어난 곳도 아니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도 아닙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제단을 세운 곳이 바로 성전터가 됩니다. 이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상처를 받으신 곳입니다. 곧 성전은 상처받으신 하나님께서 상처받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온 인류를 향한…

이처럼 고라의 자손들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었지만 도리어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뵈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상처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사랑이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들어오고 나가는 자들은 또한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어 갈 것입니다. 상처를 받았지만 상처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듯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는 성전을 사모하며 고백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 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서 이들은 늘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될 것을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 문지기로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상처받은 자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늘 봅니다. 반면 이들은 성전 안에서 주님을 뵈습니다. 그 주님은 상처를 받았지만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듯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을 뵈고 성전을 나올 때는 새로운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자처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안고 나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성전 문지기의 특권이 아니었을까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전 문지기도 한 번도 상처를 받지 않은 자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어 갔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사순절 첫번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이라는 시간이라는 성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40일간의 성전 안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뵈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한 번도 상처를 받지 않은 자처럼 사랑하라.”
주님은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자처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2020.3.1. 사순절 첫째주일 설교 중에서>

Jealousy

김승욱 집사

“For you shall worship no other God, for the Lord, whose name is Jealous, is a jealous God”(Exodus 34:14)



2/22 (월)

Love. Forgiveness. Compassion. These are the words that I often associate with God. But how about **jealousy**? When we hear this word, it conveys negative emotions in the opposite spectrum of the words that we normally associate with God.

Early in our childhood, we are taught to stray away from jealousy. Suppress it. Don't let it control you. Converts it to something more positive like drive and motivation. Yet, in Exodus 20:5, “You shall not bow down to them or serve them, for I the Lord your God am a **jealous** God,..” and in Exodus 34:14, “for you shall worship no other God, for the Lord, whose name is **Jealous**, is a **jealous** God”. How could God who we worship, praise, and glorify be a jealous God? We try to emulate God and his values. Is jealousy something we should outwardly display and praise like love?

Recently I have been struggling with this and as we approach Lent, I am provided a perspective. During Lent, many Christians commit to fasting. It may be one of their 3 meals like lunch, Netflix, coffee, etc. Typically, it is something that we find difficult to live without. Starting at Lent and for the next 40 days, Christians around the world, give up something they cherish in order to replicate the suffering of Jesus' 40 days wilderness in the desert where he encounters many temptations by Satan to stray from his Godly path. Ultimately Jesus prevails and begins his ministry in Galilee that changes mankind and history forever. We attempt to replicate this part of Jesus journey in order to proclaim annually that things of this world do not control us. We do not live for things of this world. We do not idolize food, we do not idolize celebrities, we do not idolize work, and we do not idolize money. While they provide values to our lives, we do not live for them. We live for God, we live for Jesus. And why do we ultimately sacrifice our time to commit to this practice? Because we know what God stands for. He is the truth and the alpha-omega. There is no other worthy of our time, worship, and praise. If God is the ultimate truth, there is no need to revere others. God is a jealous God who wants us to know that he is enough.

In my two decades of accepting Christ into my life, Jealousy is not a word that I have associated with God. It contradicts principles and beliefs that I have been raised on and live by, but if you have been a Christian for a while, it's time to embrace it.

Dear God, please comfort those who are struggling mightily. Please guide us in your image and help us see and feel you in everything that we do, Amen.



코로나 때문에

김경희 권사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12)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12)

경계가 보이지 않는 아득한 하늘을 향해 우주선을 날려 보내면서도
빗물이 아쉬워 애를 태워도 구름을 끌어와 빗방울을 만들지 못하고
똑똑한 사람이 자기보다 더 똑똑한 로봇을 만들어도
자신의 멈추는 심장을 다시 흔들어 깨우지 못하고
온 세상을 누르는 큰 권력을 가진 사람도
그 권력 아래 있는 작은 사람 하나가 가져다준 바이러스 앞에 무릎을 꿇는다.
지금온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가고 바이러스에 쫓긴 사람들은 미친
듯이 생필품을 사 모으고 집 문을 걸어 잠그고 집안으로 숨는다.

난 요 며칠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의 초태생은 모두 죽이셨으나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음을 면하게 하셨던 역사적인 피의 희생제인 유월절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지금 친히 유월절의 희생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바로의 압제가 아닌 생명의 위협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계시지 않을까?
텅빈 식료품점, 한산한 거리, 웃음을 잃은 사람들의 얼굴, 생계의 기반이 흔들리는 경제적 불안...
세상의 끝 날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다. 그렇게 똑똑했던 인간마저 이런 위기 앞에서 이렇게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창조주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인간의 두뇌가 똑똑해지면서 인간일 뿐인 존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영역에 도달해 보려고 바벨탑을 쌓는 노력을 여러가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도전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구원은 인간 밖에서 오는 것이 확실하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고 그분이 제공해 주신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보혈이었다. 지금 온 세계는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할 절실한 시간인 것이 확실하다. 코로나가 집집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때 못자국에서 호른 예수님의 피로 나의 삶의 모퉁이마다 아니 나의 삶의 뿌리까지 송두리째 적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코로나가 두 손을 들고 혼비백산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을 것을 상상하니 통쾌해진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죽음 이후에 다가갈 아름다운 곳이 있음을 기억하고 더 이상 움츠리지 말자. 손을 움켜쥐지도 말고 오히려 베풀 준비를 하면서 이 어둡고 비참한 코로나의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자. 이제 한숨을 거두고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보혈이 가져다준 희망을 숨쉬자.

아~~~ 창 밖에서 새들이 지저귀는구나.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명의 기적과 비밀이 궁금해진다. 정원에 나가 보아야겠다. 아마 땅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소망을 속삭여 줄것이다.

부활절이 얼마남지 않았구나. 부활절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모든 찬송을 어린양께 올려 드립니다.
온 인류에게 닥친 코로나의 위협이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할 것은
주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고백을 향기나는 제물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그만 교회당

김화옥 집사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로마서 4:21)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14)

2/24 (수)

이따금 지도를 들여다봅니다. 종종 향수병인데, 네이버에서 고향과 있고 있던 거리를 들여다보곤 하는 겁니다. 많은 게 변했을 테니, 낯선 거리와 건물들에 놀라곤 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교회들입니다. 건물은 오래되어 낡으면 새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림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곤 합니다. 얼마나 반가운지요.

코흘리개 적 유치원에 다녔던 교회. 새벽이면 종소리 우렁찼던 우리 동네교회. 학교에 오고 갈적 마다 지나치던 붉은 벽돌집 교회. 모두 크리스마스 카드에 등장할 법한 아담하고 조그만 교회들이었습니다. 붉은색 벽돌 교회는 지금 우리교회를 떠올리게 하고요.

조그만 교회당은 한국노래에도 등장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엔
아직 남아 있어요
눈덮힌 조그만 교회당

우리 교회는 붉은 벽돌집에 진화색 ECC건물이 붙었습니다. 사진으로 볼 적엔 푸른 하늘과 어우러져 무척 조화롭고요. 드론으로 내려다 볼적엔 가슴마저 서늘해져 더욱 장관입니다. 흰색 종탑과 어울려 황홀하기까지 합니다.

붉은 벽돌은 점토를 무려 1200도 고열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강도를 높이며 빛깔을 내는 방법이라 더군요. 그렇게 구워 낸 벽돌은 단단하고 그윽한 붉은색을 띠다 하지요. 타는 고난을 이겨낸 결과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께서 받으신 고난을 떠올립니다.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한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요.

유행가 가사 마냥 세월을 따라 우리 모두 언젠가는 떠날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과 교회당은 이 자리에 여전히 굳건 할겁니다.

참, 지도에선 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지요. 나는 숨기시고 주님만 보이시길 원합니다.

나 보기가 역겨워 떠나시는 주님. 행여 가시더라도 다시 돌아 오소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질 줄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떠날 실 적에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

선 혁 집사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Romans 8:28)



2/25 (목)

2018년 한 아침 이른 새벽에 아침 기도를 찾아 Acton에서 Lexington의 한 교회를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지난 저녁에 마음을 어지럽히는 고된 생각과 두려움의 마음은 늦은 밤까지 저를 뒤척이게 했습니다. 그 마음을 뒤로하고, 졸리고 피곤한 몸을 일으켜 조용한 새벽 기도를 찾아 나섰습니다. 매일 아침의 기도 시간은 저에게 짧지만 고요한 평안과 새벽녘의 해와 같이 어두움을 밀어내고 새날을 살아가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차창 밖으로 조용히 풀을 뜯고 노니는 한 무리의 철새를 보았습니다. 넓은 호수와 수풀 사이로 평화롭게 노니는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고,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날아오고 날아가며 자유롭게 활개치는 그들은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마음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철새들은 얼마나 좋을까? 나와 같은 걱정과 두려움이 없고,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을 지키지 않아도 두려움없이 마음껏 노니는 그들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내가 저들과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루를 버티기 위해 기도하며 몸부림치던 저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 깊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저들은 나를 알지도, 나를 찬양하지도, 나를 예배하지도 못한다.” 그 음성이 저의 마음을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찬양의 불륨을 높이지 않으면 부끄러울 만큼 눈물로 통회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매일의 삶에서 만물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고 나로 하여금 당신을 알게 허락해주세요. 그리고 그 은혜로 당신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허락해주세요. 고난과 역경이 비록 쓰리고 힘들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섭리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선한 일입니다. 제 안에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은총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김희진 사모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
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다니엘 10:19)

쿵! 순식간에 나를 잡아 삼킬 듯한 굉음과 함께 어딘가에 세계 부딪혔다. 눈앞이 캄캄했고, 이상하게
도 아무런 고통이 느껴지지 않았다. ‘이게 나의 마지막인가? 죽음이 이런 건가?’ 갑자기 떠내려가는
듯한 어둠 끝에서 내 이마에 닿은 누군가의 깊은 호흡과 체온. ‘아니, 이렇게 가까이 숨소리가 느낄
수 있다니 내가 아직 살아있나?’ 이마앞에 닿은 표면이 누군가의 배에 닿은 것처럼 따뜻함이 느껴졌
다. ‘어둠속에 내가 살아있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두가지는 확실하구나...’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나를 보호하고 있는 그 품에 기대어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나
도 모르게 눈을 떴을 때는 나 혼자였다. 진짜 살아있는 나는 어떤 모습인지 구분이 안될 만큼 혼란스
러웠다. 그 와중에 아직 그 호흡과 체온이 그대로 느껴지니 어둠속에서 나를 살린 그것들이 사라질
것만 같아 눈물이 터졌다. 놓치고 싶지 않았다. “제발...나를 떠나지 마세요...”

내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려고 타는 듯한 소리로 남편을 불러보았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나서
꿈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잠든 중에 남편의 배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나 했다고 웃어넘길 수 있어서 다
행이었다. 혼자라 무서울 때, 어둠속에서 얼굴에 닿은 품이 잊을 수 없을 만큼 따뜻했다고 말하면서
목소리가 흔들리고 눈물이 차올랐다.

7년전, 어디를 둘러봐도 감혀 있는 듯, 막막하고 사망이 단단한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 얼마 후
에는 두 눈에 시신경이 점점 사라지는 병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부지런히, 씩씩
하게 걸어오던 삶이 막다른 골목으로 향해 보이지 않았던 나의 한계가 느껴졌다. 벽에 머리를 대고,
낮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병원에서 여러가지 검사를 받았고, 치료를 받는 과
정에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중보기도의 힘으로, 긍정적으
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눈으로 보는 것은 점점 약해지지만, 마음의 눈은 빛을 잃지 않고
살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지칠 때, 두려울 때,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미 내 앞에 계심을 믿을 수 있게 되었
다. 비록 꿈속이지만, 하나님 품 안에 얼굴을 파묻고 그 호흡을 느낄 수 있어서 감격했다. 내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때, 전능하신 분이 자기를 낮춰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함께 아파하시며 전
해주신 체온을 섬세하게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불가능이 없으시기에, 꿈에서라도 나를 품에 안아 위
로해주는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두근거린다.

인생에 크고 작은 어둠속에서 ‘말씀을 믿는 것’ 만으로 평안의 품으로 안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 하나님의 큰 은총으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이루
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발로 기쁘게 걸어 갈 수 있음
에 감사한다. 언제든지 달려가 얼굴을 묻을 수 있는
사랑의 품이 있기에, 넘어져도, 아파도, 다시 일어
난다. 광야 순례하는 길에 내가 떠난 곳을 기
억할 수 있는 재의 수요일과 사순절기간, 마
음이 향할 곳과 짐을 내려놓을 곳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아버
지 품에 꼭 안겨 함께 호흡하고 체온을 느끼는
은혜’가 채워지는 사순절을 사랑하는 가족, 이
웃들과 함께 온전히 보내고 싶다.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가까이 대면하며 살수 있게 허락하신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합니
다. 살아가는 동안 진리의 말씀으로 어둠을 이길수 있게 인도해주세요, 아멘.



나의 하나님

김학주 교수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15)

2/27 (토)

지난 여름, 몇 개월간의 군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부대에 있는 숙소에서 2주동안 예방적 차원의 강제격리를 당하였다. 열리지 않는 창문이 있는 방안에서 하루 세번씩 갖다주는 도시락과 수돗물에 의지하며 시간을 보내니 처음에는 적잖이 답답하고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중한 혼자만의 시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 덕분에 주어진 격리기간 동안 성경을 읽어야겠다고 다짐을 했고, 마음으로 자주 소망했으나 실행으로 옮기지 못했던 성경통독에 스스로를 꼭 담글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회개, 용서, 절제 그리고 금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화해와 사랑으로 채우는 2021년도 사순절을 준비하며 격리기간동안 성경읽기를 통해 느낀점을 나누어 본다.



우선 한 목표에만 집중을 하다보니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한 불평이 사라지고, 또 격리기간 동안 밖을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니 읽기에 온전히 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오디오로 들으며 또 책을 읽으며 꽤 빠르게 한장한장 넘어가다보니 지역이름이나 등장인물 등등의 구체적인 사실들보다는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택과 판단기준에 대한 패턴을 아주 조금이나마 더 명확히 알 수 있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의 세번째 유혹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단순히 성경구절을 알거나 외우고 있는 것보다 말씀적용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말씀적용을 최대한 올바르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들과 과거 선택들을 모아 놓은 성경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과거행적이 미래를 예측하는데 절대적일 수는 없다는 생각을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말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장 내 마음에 강하게 드는 생각 중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 말고는 답이 없다’ 라는 것이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다지 새로운 것도 없는 내용이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과 판단기준에 대한 패턴을 아주 조금이나마 더 명확히 알 수 있었다’ 고 느끼기는 했지만, 결국에 누군가의 마음이라는 것은 - 굳이 하나님에게까지 가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떠올려본다면 - 본질적으로 혼란스러운 우리만큼 신비롭지 않은가. 역시 누군가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리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직접 물어보는 것이겠다. 동행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과 사순절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행적을 곱씹어본다. 병든 자들, 귀신들린 자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그 외의 수많은 사회의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섬김 그리고 죽음이라는 궁극의 희생과 사명의 무게를 감당하며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을 고난 중에도 사모하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과 동행하셨기에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오늘도 말씀, 기도, 찬양, 성도간의 교제, 그리고 이웃 섬김을 통해 예수님과 동행을 가능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한다.

나의 하나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당신의 말씀은 신실하며 당신은 실수가 없십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속에 임하게 하여주시고, 주님 알기와 주만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렵 없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리며, 당신의 완전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전”

이영길 목사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12-20)

어느 유명한 랍비 가정이 있었습니다. 랍비의 아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을 방에 놓고 곧바로 뒷마당 문으로 나가 숲으로 향하곤 했습니다. 며칠 아니 몇 주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30분 후에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랍비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숲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냐고.... 아들은 대답합니다. “아빠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기 위하여 숲으로 가요. 숲에서 나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오,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것을 모르니...?”

“물론 알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것을.... 그런데 저는 어디에나 있지 않아요.”

자기는 숲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가 된다는 뜻이 담긴 말입니다.

아들은 시간과 공간의 신비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맞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나 몸을 갖고 사는 우리 인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의 신비스러운 몸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신비스러운 축복의 세계의 신비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도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오래 전 교회 표어를 ‘감사하는 회중’으로 정하고 일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어느 분의 책에서 보았는데 당신은 의자 하나를 선정해서 ‘감사의 의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의자에 앉으면 감사의 기도부터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합니다.

저도 그것을 흉내 내어 저희 집 어느 의자를 ‘감사의 의자’로 삼은 적이 있습니다. 몇 달 그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감사가 늘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의자를 치울 수밖에 없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자에 앉아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스스로 ‘이 의자가 감사의 의자야’ 생각하면서 앉지만 왠지 전처럼 자연스럽게 감사의 기도가 나오지 않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간과 공간안에 사는 우리 몸의 신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으로 우리의 몸을 조정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우리의 생각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시간과 공간과 몸 곧 또다른 삼위일체의 신비가 아닐까요? 우리의 몸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는 우리 머리는 기억을 못해도 몸과 시간과 공간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신비스러운 일은 우리가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생각을 넘어 신비하게 우리를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도 비슷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방과 후 집 뒤 숲에 자기의 몸이 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곤 한 것이 아닐까요?

이런 맥락에서 남은 사순절 우리가 우리들의 몸을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니 그 때 우리라는 신비한 몸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지 않을까요? 이를 위해 우리는 사순절 기간 기도와 절제와 구제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즐거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비스러운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중략)

말씀을 거둡니다.

한 두 번 소개한 하형록 회장님이 계십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 한센병 환자촌에서 어릴 때를 보내고 미국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자수 성가한 분입니다. 물론 한 때는 심장병으로 많은 고생을 하였지만 기적적으로 살고 이제는 큰 회사의 회장이 되셨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많은 문제 앞에서 도리어 신비한 축복의 세계를 누리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저기 다니시면서 많은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성공의 비결을 묻곤 한다고 합니다. 그 때 이렇게 대답하신다고 합니다. “등에 천 근의 무거운 철근을 지고 가다 보면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등에 진 천 근의 철근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문제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하 회장님에게는 문제로 보이지 않았습디다. 신비한 세계로 가는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아무나 도구로 생각하게 될까요? 시간과 공간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람들 만이 그렇지 않을까요? 이들은 바로 사순절이라는 위대한 시간 속에 위대한 공간을 만들어 가는 자들일 줄 압니다. 스스로 성령의 전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들은 위대한 시간 속에서 위대한 공간을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하여 신비한 세계는 선물로 매일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은 절제함으로 우리들의 몸을 위대한 시간과 공간 속에 맡기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2020. 3. 8. 사순절 둘째 주일 설교 중에서>



겨울철 우리의 전신갑주

김계숙 권사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11)

3/1 (월)

지난 두어 해는 날씨가 추워도 눈이 그렇게 많이 안 내렸는데, 2020년은 12월 16일 밤에 대폭설이 내려 매일 아침과 점심 그리고 저녁 식사후에 걷는 우리의 일상도 날씨에 걸맞게 변화되었습니다. 얼음과 차 바퀴에 다져진 눈 위를 걸으려니 미끄러워 걷기가 힘들어서 겨울철 등산할때 쓰던 Micro-spikes를 찾아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처럼 신발 밑에 덧신으니 훨씬 걷기가 쉬워졌고, 또 얼마 전 부터는 해가 짧아져 오후 5시가 되면 어둑어둑해져 손에 든 Flashlight대신 머리에 광부들 마냥 Headlamp Flash light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마냥 붙이고, 또 몸에는 오가는 차 Headlight에 반사되는 Reflective Vest Running Gear 를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인것”같이 입고, 손에는 “믿음의 방패로 들고” 우리 Cardinal Lane 이웃들 한집 한집을 위해 “항상 성령안에서 기도하고 간구를 하며” 멋지게 걷고 있습니다.

겨울철 우리의 전신갑주가 아무리 멀어져도 우리의 몸과 팔 다리가 든든하지 않으면 모두가 ‘그림의 떡’이듯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 반석처럼 든든해야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잘 어울리겠지요. 든든한 신앙은 우리의 마음 발이 좋아야 하는데, 사순절은 믿음의 마음 발을 갈아엎는 때입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를 속 깊은 곳에 감춰온 말 못할 수치스러운 일들, 부끄러운 행실들을 하나 하나씩 꺼내어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를 진 누르고 있는 깊은 죄를 하나님께 우리 각자 고백합니다.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가슴이 뜨거워질 때까지!
주님의 잔잔한 음성이 들릴 때까지!

“내 피로 너 죄사함 받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 이제는 꼭 숙인 머리를 높이 들고, 축 늘어진 어깨를 활짝 펴고, 흰 소띠해 신축년인 2021년에는 소처럼 묵묵히 힘차게 하나님 주신 소명을 하나님 손잡고 잘 감당해 나아 가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의 겨울철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어 더욱 빛날 것입니다. ‘암소’를 라틴어로 ‘Vacca’라 하는데 여기서 ‘Vaccine’ (예방주사)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니, 코로나 백신과 하나님 은총으로 코로나도 이겨 나갈 겁니다.

참 살아가기 힘들어 넘어질 때 마다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되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없이 하루도 살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음성, 주님의 손길, 주님과의 눈맞춤으로 하루 하루를 시작하게 저희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과 손잡고 이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려 주신 처방전

최윤희 집사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6:1-3)

3/2 (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이른 아침에 특히 기침이 심하고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해요. 두통도 좀 있는것 같고 목이 많이 부어서 음식을 삼키기 힘들어요.”
며칠을 앓다가 병원에 가서 의사 앞에서 이런 저런 증상들을 말하고 이름 모를 약을 처방받아 약을 타서 오는 길엔 왠지 이미 반은 나은 듯한 기분이 든다. 아직 약을 먹지도 않았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미국살이는 이런 재미도 없으니 일단 아플데로 아프다가 나아지겠지 하며 타이레놀과 애드빌로 며칠 더 버티 본다. 남편은 처음 며칠은 “에고 고생이 많네, 내가 도와 줄건 없어?” 하더니 삼사일이 지나도 나아지는 기미가 없으니 그런가보다 하는것 같다. 내심 서운하다. 그가 해 줄 수 있는것이 없다는걸 알면서도 그냥 서운하다.
아들은 그마저도 눈치가 없다. 새해 부터 위염이 도져서 찬밥에 물을 부어 죽을 끓여 먹으며 이틀째 버티고 있는 나에게 와서 “엄마 라자냐 먹고 싶어요.” 속으로 ‘네가 사람이냐?!’ 하면서 잠시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 냄새 때문에 다시는 먹기 싫었던 위장약을 들이키고는 야채를 썰고 면 삶은 물을 올린다. 그러던 어느 날은 괜히 마음이 아팠다. 눈물이 났다. 갑자기 짜증도 나고 화가 나기도 했다. 며칠동안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다. 가까운 곳에 알아 둔 동굴이라도 있으면 들어가 영원히 나오고 싶지 않은 기분이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하면 나아질까 생각해 본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 몸은 아픈데가 없는데 반쯤 정신은 나가있다. 그런데도 아침은 오고 아이들 도시락은 싸야 하고 일단 일어난다. 습관처럼 유튜브에서 ccm을 찾아 눌러 놓고 냉장고 문을 열어 본다. 아무 생각 없이 아침 준비를 하던 중에 갑자기 들려오는 가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머릿속에 갑자기 많은 생각들이 스치면서 며칠 동안 나를 누르고 있던 뭔가가 사라지고 울컥 하며 솟아오르는 힘을 느꼈다. 눈물이 핑 돌았다. 반쯤 아니라 다 나왔다. 하나님께서 내려 주신 처방전으로 나는 그날 아침 길고 어두웠던 그 동굴에서 나올 수 있었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잊고 있었네요.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매일 아주 잠시라도 주님을 만나고 느낄 수 있게 해 주세요, 아멘.



Our Job(욘)

안성민 교우

“I know that you can do all things, and that no purpose of yours can be thwarted.” (Job 42:2 ESV)

3/3 (수)

I know, at this point, perhaps our lent book is full of the reflections on the coronavirus, but I wanted to zoom out from it a little bit and talk about how our everyday lives connect with the oncoming of the virus, and more importantly, how we can learn from Job to react to these situations.

Job was not lacking. His cup was already overflowing at the beginning of the book, and he was a righteous man. He cared for his children and had plenty of livestock. Suddenly, without rhyme or reason, he lost everything. In a manner that is only a step away from a ridiculous, tragic comedy, servants come one by one and bare news of terrible events that have unfolded. One moment he had it all – the next, everything was lost.

Last year, a unique experience caused the entire world to suffer a similar Job-like fate for many. People lost loved ones, jobs, businesses, health. It all happened so suddenly, and we continue to suffer from this pandemic. Our lives are anything but normal, and it's getting tiring to pretend that it is.

But this is merely more impactful because everyone is experiencing it simultaneously. Even before this situation, unexpected change for the worse came without warning. People still died. People still lost their jobs. They still lost relationships, wealth, health. Most of the time, without warning.

So, is what happened to Job extraordinary? I don't think so. But how did Job react? He “tore his robe and shaved his head and fell on the ground and worshipped” (Job 1:20 ESV). He blessed the name of the Lord because he knew the score: no matter how bad things get, it was God who gave us life, and God who gave us the things we have. All the things we are blessed by was never ours to begin with – God granted us these things to us, so there's no reason why it's wrong for Him to take it all away.

Bad things happen all the time. But I think the story of Job tells us a couple important things: first, don't be like Job's friends. Don't mistake explanation as consolation – especially if that explanation of the situation is unfounded. Second, remember God. It's easy to pray in hard times, but it's hard to remember God's everlasting love and plan. Third, trust God, because He always has a plan for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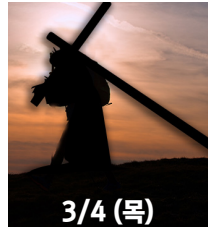
Even beyond this COVID-19 situation, our Job moments are everywhere. And people experience these moments arounds us, as well. During these times, our job as fellow siblings in God is to embrace each other and continue to uplift God's name, no matter how hard. We must thank Him for what comes next, after all.

Heavenly God, in these troubling times, may we never question your goodness, and your control over everything in this world, Amen

‘사랑이 뭐길래’

정유미 집사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호세아6:1)



3/4 (목)

누구나 한번쯤은 사랑에 울고
누구나 한번쯤은 사랑에 웃고
그것이 바로 사랑사랑 사랑이야....

‘사랑’이라는 단어에 80년대 유행가가 흥얼거려지는 걸 보면 나도 요즘사람은 아닌가보다. ‘사랑’은 고급동서를 막론하고 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얼마나 많은 노래가 드라마와 영화가 회자되었고 또 기 확되고 있는지 모른다. 영원한 소재이다.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얼마전 새로운 성경공부 교재를 받아들었다. 호세아 ‘죽음보다 강한 사랑’ 제목부터 강렬했다. 소재 목들은 더욱 눈길과 마음을 사로잡는다. 제 1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사랑.. 제2과 소망의 문을 열어 주는 사랑.. 제 3과 속량해 주는 사랑.. 기다려 주는 사랑.. 싸매어 주는 사랑..거부당한 사랑..(이 제목에서 웃음이 터졌다) 아직도 유효한 사랑.. 질투하는 사랑..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무조건적인 사랑.. 끈질긴 사랑..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끝날 줄 모르는 사랑은 드디어 13과 치유하고 기뻐하는 사랑으로 종결된다.

나는 결혼식 2주 후에, 이민가방 4개를 들고 보스턴 공항에 도착했다. 그 초보 새댁은 이제 결혼 10 주년을 넘긴 어엿한 보수동댁이 되었다. 지난 십년 동안 보스턴에서 술한 인연을 마주했고 사랑하고 또 헤어졌다. 열어지기도 하고 또 깊어지기도 했다. 그뿐인가! 한국에서 입에서만 맴돌던 ‘사랑’이라는 말이 이 미국땅에서는 너무 자연스럽다... 6살짜리 딸과도 하루에 몇번이나 사랑해! 아이러브 유! 라는 말을 하는지 모른다. 주일아침 성경공부모임에서 말씀과 함께 사랑이 오고 가며 북동구역모임 카톡방에서도 사랑한다는 말이 부끄럽지가 않다. 신년 첫주일에 모여 만두를 빚으며 훈훈한 정을 나눈 구역식구들은 찬양제 후보곡으로 나온 ‘참사랑’이란 제목에 무릎을 쳤다. ‘우리 구역에 딱 맞는 곡이네!’ (결국 아이들을 고려해서 다른곡으로 결정되었다. 이것도 어르신들의 사랑이며 배려다.) 감사하게도 나는 광야에서 사랑을 주고 받으며 2020년을 열고 있다.

하하호호 사랑에 빠져 지내던 중, 문득 ‘나는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 받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신에게 물어본다. 사랑은 실체가 없다. 어렵다.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읽고 소그룹 활동을 하고 있는 나는 과연 ‘진실한 사랑’을 알고 있기는 한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을 아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아는가? 스쳐가는 사랑은 싫다. 알팍한 사랑도 사양한다. 시간이 흘러도 바래지 않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요동치지 않는 ‘참사랑’을 하나님과 하고 싶다. 나의 가슴에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물이 흐르길 원한다. 무조건적이고 깊디깊은 주님의 사랑의 바다에 풍당 빠지고 싶다. 하나님과의 핑크빛 로맨스를 꿈꾸며,,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성경공부반 문을 다음 주일 아침에도 열 것 이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희를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참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동참

손영권 집사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누가복음 9:16)

3/5 (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예수님을 따라온 우리들을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빈 들에서 배고파할 때에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게 하니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눅 9:13)’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있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또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눅 9:16)’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내가 기적을 일으켜 그 사람들을 먹이겠으니 나에게 오게 하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굶이 제자들을 시키지 않고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것처럼, 물고기와 떡을 하늘에서 내려 주셔서 직접 배고픈 무리에게 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고 또 기적을 일으키신 후 그 음식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대신 그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시 혼자서 사역을 하시기 보다는 제자들의 ‘동참’함으로 함께 사역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우주보다도 더 크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인간과 함께 동역하길 원하신다니... 저희 인간들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요 영광이고, 또한 상상하기조차 힘든 주님의 겸손하신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제자가 되기 원하고 특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눅 9:20)’로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고난에도 또한 동참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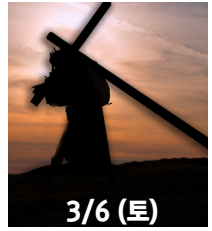
그럼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저와 무슨 일을 함께 하고 싶어 하실까... 아니 그보다 먼저,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저에게 어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여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마도 평생 매일매일 물으며 살아가야 하는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아침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루 하루 그 답을 찾아 용기있게 그것을 살아내어, 날이 갈수록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가는 제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깊이 묵상하여 날마다 저의 십자가를 찾아 기쁜 마음으로 지고 살아가며,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에도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환도뼈를 치시는 나의 하나님

이재혁 집사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뱀엘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호세아 12:4)



3/6 (토)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다. 마음이 괴로웠다. 이렇게 절실하면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이 꼭 들어주실 거라고 믿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매달렸다. 새벽 4시반에 일어나 다른 교회의 새벽 기도에 나가고, 금요일 저녁 찬양 예배도 나갔다. 그래도 마음이 차지 않았다. 틈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조직신학도 공부하며, 주님을 더욱 알고자 애썼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도 들리지 않았다. 금식 기도를 결심했다. 물만 조금씩 마시고 주님께 매달렸다. 사흘쯤 지나고 배고픔은 그런대로 견딜 만했는데, 온 몸에 힘은 없었다. 먹는 즐거움이 사라지니 일도 재미가 없었고 삶이 텅 빈 것만 같았다. 가장 큰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시기라고 스스로 자꾸만 세뇌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 혼자 파놓은 절망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던 나를 주님은 그대로 버려 두지 않으셨다. 한숨같은 기도조차 응답해 주셨다. 말 걸어 주시고, 따스한 손길로 안아 주셨다. 그동안 내가 믿었던 건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다. 세상의 정욕을 구하면서도 내 욕망의 끝에 주님의 이름을 살짝 엮어 기도했던 나였다. 죄였다. 내 욕심이 그렇게 사악했다. 집요한 나의 어리석음 앞에서 결국 주님은 나를 다 버리게 하셨다. 그 헛된 욕망들을 모두 내려놓게 하셨다.

물론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었다. 바라던 일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놓여있을 뿐이었다. 달라진 건 오직 마음뿐이었다. 담대함을 주셨고 그렇게 내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졌다. 그렇게 주님은 일하고 계셨다.

어렵고 힘들때 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서준호 (성악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신명기 28:1-2)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더욱 더 주님의 형상과 닮게 하시기 위해 나의 모난 부분들을 깎으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 이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고난’ 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낮은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 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연단’ 이라 부릅니다.

사탄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질투하여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물질의 부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풍족히 불어넣어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 이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축복’ 이라 부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에게 아버지의 지혜를 구하고 나의 아둔하고 어두워진 눈을 밝혀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혹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마음이 무너 질 때도 있었지만
그 분은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 믿어야 할 대상이기에,
늘 하나님과의 시선 맞추기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우리는 모두 건망증 환자라서, 자꾸자꾸 들려주지 않으면 까먹고 맙니다.
내 맘은 한없이 가라앉아 멍멍해질 때
눈을 들어 우릴 사랑하시는 그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퍼온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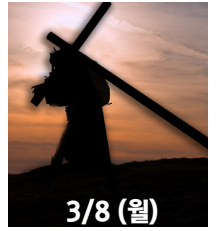
[서준호님은 성악가로 20대에 교통사고를 당해 목뼈골절, 신경이 끊어짐으로 전신마비가 되었으나 아버지의 하나님의 꿈을 통해 응답을 받고 치유된 베이스 성악가 이다.]

끝없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들에게 2020년 전 주님의 아들을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기

곽서영 집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3)



아이들의 찬양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내용의 가사가 많다. 주일학교 예배를 함께 드리다 보면 무척 큰 소리로 아이들이 “I love my Jesus!” 라고 외치며 찬양하는 걸 종종 본다. 또 어른 예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의 많은 것을 다 바치겠다고 결단하는 찬양을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열심히 부를 때, 정말 지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고 자문한 적이 있다. 부모에게 무언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아이처럼 하나님께 많은 것을 달라고 기도한 적은 많았고, 또 주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느낄 때도 많았지만, 정작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한 적이 있었던가 하는 물음이 있었을 때가 있었다.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였다. 하나님을 위해 충성되이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고난은 왔고, 그 고난의 한 가운데에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몸부림을 쳤다. 교회에서 맡은 일도 열심히 하려고 애썼고 바쁘게 지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경험이 되었고 나를 많이 변화시키게 되었다.

첫째로 고난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그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므로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이 날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녀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기에 그 고난도 이유가 있다는 믿음이 들게 되었다. **둘째는** 주님께 물으면,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다. 난 항상 내게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먼저 판단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정작 주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되었다.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물으면 답하신다는 것이다. **셋째는**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것이다. 난 아무리해도 갚을 수 없지만, 받은 사랑이 너무 많다.

아직도 선교지에서 본 밤하늘의 별들을 잊을 수가 없다. 도시 속의 빛들로 가리워져서 한 두개 보기도 힘들었던 별들이 너무나 선명하고 환하고 크게, 게다가 별들 사이에 또 많은 별들이 나타나고 또 나타나서 밤하늘을 꼭 채워 버려서 깜짝 놀랐다. 늘 내 눈이 나빠서 별들을 잘 볼 수 없다고 생각해 왔었는데, 마치 그 별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왔다고 알려주는 것 같았다. 그 순간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예쁘고 선명하게 지켜보고 계셨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항상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물 댄 동산 (A well-watered garden) 한문수 장로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 58:11)

3/9 (화)

2020년은 일생에 가장 많이 산책을 했던 한해이다. 집주위를 거의 매일 걷다 보니 새로운 산책길을 발견하는 작은 일에도 기쁘고 즐거워했다. 새로 발견한 산책길은 집 주위의 골프장을 따라 찰스강의 상류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에서 거의 20년을 살았는데도 그 아름답고 포근한 산책길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왔다. 비가 많이 내린 후에는 강물이 늘어서 산책로의 일부까지 물이 찼고 비가 오랫동안 안내리면 강 바닥이 흰히 보일 만큼 강이 얇아지곤 했다. 어떤 날은 백조를 아주 가까이서 보고 놀라기도 하고, 호리호리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먹는 모습은 살아 있는 공룡을 연상시키는 헤론도 만났다. 귀여운 아기 오리들이 줄지어 강물을 가로 지르는 모습, 걷는 사람을 보고 놀라서 도망가던 칠면조, 멀뚱 멀뚱 서서 산책하는 나를 바라보던 사슴 가족 등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참으로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또한 물 흐르는 소리, 부스럭 하고 다람쥐 뛰어다니는 소리, 뾰드득하는 눈 밟는 소리 등은 귀를 즐겁게 해주었다. 물론 나만의 경험은 아니었음이라 생각하며 보스턴 한인교회의 많은 성도님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이다.

지난 한 해는 인류 역사상 가장 힘든 해였을지 모르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건강하게 일을 하며 어려운 시기를 지내온 것을 보면, 지난해 우리들을 늘 물 댄 동산처럼 복된 곳에서 살게 하셨음을 깨닫고 더욱 감사하게 되었다. 강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늘 든든한 뿌리를 통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셨던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인생을 더욱 복된 삶으로 살아 갈 수 있게 하시려고 자주 깨끗하게 손 씻기 등을 통해 더욱 정결하며 위생적인 삶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이다. 찰스강의 수위가 높을 때나 낮아 질 때도 강변에 심겨진 나무들은 철을 따라 옷을 갈아 입었고 변함없이 건강하였으며 지금은 다시 펼쳐질 새로운 아름다움을 준비하고 있다.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셨던 진주처럼 소중한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찾게 되었다는 점이다.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의 아주 가까운 삶 속에 허락해 주셨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앞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삶을 살아온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아름답고 소중한 진주는 나의 일상 속 여기 저기에 가득하게 쌓여 있었던 것 이었다. 허락하여 주신 가족에게 감사하고, 섬기고 있는 교회가 강건함에 감사하고, 함께 매주일 만나 성경 공부하며 기도를 나누는 성경공부반, 구역식구들, 청년 1, 2부, 부부 청년부, 남선교회 등등 주위에 소중한 보물들로 채워 주셨음에 감사한다.

지난 한 해는 매순간이 사순절이었는지도 모른다. 올해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근신하고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며 경건과 절제, 희생과 나눔 등에 더불어 지금 내게 허락하여 주신 물 댄 동산에 감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시기이면 한다.

올해 또 어떤 일을 마주하더라도 저희에게 힘과 희망 그리고 도움을 주시옵소서. 물 댄 동산을 지켜 주시며 자애로움으로 저희를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한 해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김정연 집사

“공홀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에베소서 2:4)

언제인가 차를 운전하면서 가다가 신랑에게 그 날 듣고 도전이 된 설교와 다짐을 나누었다. “오빠, 오늘 말씀을 들으니 불쌍히 여겨 주소서 기도가 참 중요한 거 같아서 앞으로 오빠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기로 했어.” 잠깐의 침묵이 흐른 후 옆자리에 앉아있던 신랑이 겸연스레 묻는다. “넌 이제까지 그렇게 기도 안했어? 나는 맨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 그래?” 내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을 하고 운전을 계속 해 가는데 시간이 조금씩 흐를수록 곰곰이 곱씹을 수록 점점 내 안에 짜증과 화가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다. ‘아니, 왜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를 하고 난리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한다고.’ 그도 그럴 것이 그 말씀에서 목사님께서 들으셨던 예화가 본인 아내, 즉 사모님께서 자신을 힘들게 하시는 분들과 싸울 수도 없으니 힘들게 하시는 분들의 이름을 넣어 000 집사를, 000 권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나는 몰랐지만 결혼생활 내내 신랑이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예화처럼 내가 신랑을 힘들게 해서 신랑이 그런 기도를 했나 혼자 발이 저리기도 하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해서 생각할 수록 화가 났던 것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자 신랑의 그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하루 하루를 살아낼 수 있었구나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이후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친구들의 상황이 나 지체들의 기도제목을 듣고 중보 기도할 때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먼저 기도하게 되었다.

내 자신이 싫을 때가 있다. 아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나는 왜 그냥 못 넘어가고 이런 일에 화가 날까/나는 왜 버럭 할까/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나는 왜 하나님께 다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염려하고 고민할까. 똑같은 기도제목이 지겨울 때도 있고 참 바뀌지 않는 상황과 문제 앞에서 과연 해결이 될까 의심하며 갑갑한 마음에 그냥 회피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늘 반복해서 넘어지는 내가 싫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면목이 없고 부끄러울 때도 있다. 그렇게 또 무기력하고 무능한 내가 싫고 그런 나에게 화가 나던 어느 여러 날 중 하루에, 나의 마음에 다가온 참 은혜가 있었던 찬양이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여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가 사랑받을 만해서 때문이 아니고 내가 사랑 그 자체라 너희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다.

사순절만큼이나 자력 없고 무기력하고 무능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죽음으로 사랑을 확증해 주신 사랑이신 하나님, 공홀하신 하나님을 목상하기 좋은 시간이 없는 것 같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위의 찬양 가사처럼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홀을 목상하며 그 사랑 안에 깊이 잠기고 싶다. 아무도 해결해주지 못했던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 달라고 소리쳤던 소경 바디메오, 나병환자들. 그러한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던 공홀이시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모든 기도 제목들보다 앞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내 자신, 소중한 가족, 힘들어 하는 주위의 사람들, 이웃들을 위해서 말이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한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신랑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000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아멘.



서투른 아버지인 나에게 늘 든든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윤병준 집사

3/11 (목)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서 4:9)

2020년 5월의 어느 날 썼던 일기 내용.

학급 전체가 참여하는 Zoom미팅 시간만 되면 늘 소심해지고는 하는 우리집 첫째 하성이.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게 낯설고 힘든지 선생님께 이따금씩 하성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질문을 하셔도 대부분 “패스”를 외치고는 한다. 그러다보니 선생님께서 무슨 질문을 하시면서 “혹시 대답해 볼 사람?” 하고 찾으시면 다른 아이들은 손을 번쩍 들고는 하는데 하성은 좀처럼 대답을 하는 경우가 없었다. 그런데 2주 전 금요일, 조금 작은 규모의 학급 미팅이 있을 때에는 하성이가 웬일로 용기가 났는지 처음으로 손을 들고 대답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전체 학급 미팅에서는 심지어 두번이나 손을 들고 질문을 하겠다고 나서서 나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도 질문하고 싶은게 많은데 어떻게 하냐고 내게 묻기까지.

오늘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하성이가 지지난번에 작은 규모의 미팅에서 용기를 얻어서 그런지 지난 주에는 전체 학급 zoom 미팅에서도 용기를 내서 질문도 하고 대답도 잘 한 것 같다고 내가 말했더니 하성이가 갑자기 내 말을 가로막으면서 단호하게 “No”라고 말하는게 아닌가. 깜짝 놀라서 하성을 봤더니 웃으면서 대답을 한다. “I think Jesus is changing me.” 예상하지 못한 대답에 깜짝 놀란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성이가 다시 대답을 한다. “Yes, I think Jesus is changing me.” 그리고는 혼자서 또 웃는다. 찬양 가사에서 영감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어떻게 그 자리 그 순간에 예상치도 못한 그런 대답이 나왔는지. 하성이가 주안에서 지혜롭고, 사랑스럽고, 의롭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늘 기도하면서도, 막상 변화하는 모습이 보일 때에는 이성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유들만 따지고 있는 내 모습이 조금 많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다.

최근에 읽었던 parenting책 중에서 정말로 마음에 많이 와 닿은 책이 있었는데 그 순간 그 책에 나왔던 한 구절이 떠올랐다. “In every moment when you are parenting, you are being parented.”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문장들. “In every moment when you are called to give grace, you are being given grace. In every moment when you are rescuing and protecting your children, you are being rescued and protected. In every moment when you feel alone, you are anything but alone because he goes wherever you go.” 내가 아이들을 양육하며 struggle하는 그 순간들을 통해 나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 부끄럽다. 그리고 감사하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삶의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매일 체험하는 부활의 아침

김문소 장로



3/12 (금)

“하나님께서 설교(전도)의 미려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1:21)

2019년 BNI 가을 학기에 김수영 목사님의 강의 “거룩한 예배로서의 설교 듣기”를 수강했다. 매번 강의 시작 전에 9월에 가진 ‘르호봇(Rehoboth) 축제’를 위해 유경렬 목사가 작사하고 오은영 사모가 작곡한 ‘르호봇의 노래’가 우리들의 노래이기에 소리 높여 노래한 후 수강했다.

강의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대요리문답 제160문]

문: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근면과 준비와 기도로 설교를 듣고 그 들은 바를 성경으로 살펴보고,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준비된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참고하여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생활에서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강의 중 ‘설교는 **들음**이다’와 ‘**들음이 믿음**이다’의 주요 요소들로 1)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2) 온유함과 겸손으로 듣기 3) 믿음과 사랑으로 듣기 4) 성령님을 의지하여 듣기 5) 분별함으로 듣기 등이 모두 내 마음에 짙어 왔다. 나는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나 반성해 본다.

또 교재로 Tish Harrison Warren의 책 ‘Liturgy of the Ordinary’ 한글 번역본 ‘오늘이라는 예배’ 중에서 ‘잠에서 깨서’ ‘잠’ 잘 때까지의 하루를 ‘오늘이라는 예배’로 재치 있게 실천 신학적으로 엮어 나간 필자의 노력에 감탄하며, (1장) ‘잠에서 깬’과 같이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11장) ‘잠’을 주신다고 멋지게 이 책을 끝 맺음 하고 있다.

우리가 “안식”과 “쉼”을 얻기 위해 (11장) ‘잠’ 자는 사이에도 “히브리인의 저녁/아침 순서”에서 보듯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믿는 자에게 부활은 일년 중 한번 ‘부활절’만 아니고, 매일 밤 ‘잠’을 잠으로서 죽음을 연습하고, 매일 아침 깨어남으로 부활을 맞이함 같이, **매일 아침**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따라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한다.

매일 주님 은혜로 편히 잠들고, 매일 주님 손 붙들고 깨어나는 부활의 축복에 감사 찬송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받치는 눈물

한정인 집사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창세기43:29-30)

우리는 지난 2020년 3월 이후 짧지 않은 인생의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였다.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서 끝날지 그리고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모두 알 수 없다. 그러면서 나는 마리아 여성 중보기도회의 기도 모임을 줌으로 계속하며 조금이나마 막힌 성도의 교제를 간간히 지속할 수 있었다. 모든 것이 변화된 현실 중 가장 컸던 변화는 2달여간 하던 가게를 문을 닫아야했다. 갑자기 하루 아침에 생업을 대책없이 닫고 집에서 온식구가 대기할 때는 여자이고 엄마로서 쉽지 않은 요동치는 현실 앞에 괜찮지 않으면서도 아이들 앞에서 괜찮은 척... 가장으로서, 남자로서 힘들어할 남편 앞에 또 나는 괜찮은 척을 해야 했다. 그리고 나는 비디오 특으로 지인과 말씀을 1시간씩 읽기 시작했다.

그때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오랜만에 고통의 긴 여정속에 만나면서 복받치는 감정을 누르기 위해 남몰래 나가서 울고 들어온다. 그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펴놓은 채 나는 펄펄 울었다. 오랜 시간 기다리고도 감정대로 바로 행하지 않는 요셉의 아름다운 애뜻한 사랑의 마음이... 주님도 나에게 이러하셨을 것이 생각나기 시작했다. 형들의 배반으로 그 어려움에 처했지만 형제들을 만나 그들을 향한 뜨거운 눈물이 느껴졌다. 그 형들은 그저 어리둥절한 현실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기보다 그 사실을 덮어야 한다는 절실함이 더 컸으리라. 나도 늘 그런 삶이 아니었나 싶다.

나는 코로나 앞에 바뀌어버린 실생활과 주말이면 아이쇼핑이라도 돌아다니던 자유를 저당잡혀 대상이 없는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할 즈음 주님이 이런 나를 바라보고 계실 일이 생각났다.

“정인아! 너 그렇게 힘드니? 가게를 못해서 돈이 안들어오니 힘드니? 마음껏 돌아다니지 못해 힘드니? 밥하기 싫을때 외식하지못해 힘드니?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만 해서 힘드니?”

“네 너무 답답해요,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고 돌아서니 내 등뒤에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거 다 네가 나의 자녀로 살아있다는 증거란다...”

아!

그랬네요—

그런 엄청난 사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네요. 빼앗기고 없어진 것보다 아직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없었네요. 이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코로나를 넘어 주님이 아직도 나에게 흘려 보내주시는 사랑의 복을 그것 하나만으로 지금의 얽매임을 인내하겠습니다.

내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흐른다. 이건 감사의 눈물이다. 이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기도하며 또다른 사순절의 의미를 묵상해본다.



주님 우리앞에 있는 장애물때문에 주님의 사랑의 복받치는 눈물을 잊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월을 아끼라”

이영길 목사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13-16)

과거의 것을 honor하고 미래를 축하하는 삶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흘러가는 세월 속에 과거를 아름답게 채색하고 미래를 축하하는 삶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시간의 위대함을 누리는 삶입니다. 과거의 것들이 책망받을 만한 것일지라도….

한편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어주시리라 하셨느니라.” 책망받을 것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죽은 자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빛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늘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의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믿는 자들을 잡기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곧 그는 책망받을 것과 심한 어두움 안에 거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 때 그리스도의 빛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그의 일생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로 인해 그는 평생 그리스도의 빛이 다가오는 축복을 누리며 삽니다. 결국 그는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다가온 것이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둠과 책망거리가 가득 찬 세상에 오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빛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과거의 책망거리로 인해 두려워하고 오늘의 어두움 가운데 갇혀 있으며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과거를 빛나게 하며 미래의 아름다움을 즐기게 하려고 우리의 현재 속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이 빛을 받은 사람은 현재라는 시간 안에서 어두운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는 항상 우리의 현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어두운 과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색시키는 것입니다. 곧 새로운 과거를 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시 써 내려 가는 것입니다. 아니 다시 그려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과거를 honor하는 삶이 아닐까요?

아울러 우리는 때로는 현재라는 어두운 시간 안에 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어두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현재라는 위대한 시간 안에서 미래가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결코 미래를 향해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미래가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미래는 새로운 빛으로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향해 늘 찾아오듯이….

곧 사순절은 정신없이 살던 삶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 안에 늘 남아 있는 과거를 다시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색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놀라운 미래가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고 있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미래는 주님의 보혈과 함께 신비스럽게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사순절은 주님의 보혈 보다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생각하며 지내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수 있기 위해서는 바이러스에 대해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주님의 보혈이 그 무엇도 이긴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보혈로부터 흘러나오는 빛은 어떤 어두움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공포도 놀라운 빛으로 바꿀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의 보혈로 이루어진 빛의 나라가 우리를 향하여 늘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인해 우리들은 위대한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사순절 세월을 아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어두운 곳 골고다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가장 소중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빛이 우리를 찾아오십시오.

〈2020. 3. 22. 사순절 넷째 주일 설교 중에서〉



구약성경에 실려진 여인들의 믿음 이야기

김캘리 권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1)

3/15 (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자들의 배후에는 여자의 영향력이 그림자처럼 존재하고, 자녀들에게도 어머니의 영향력이란 막대한 것임을 볼 수 있다. 잠언 31장에 기록된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역설한 조언이나 현숙한 아내에 대한 글을 통해서 믿음의 여인들을 생각해볼게 된다. 특히 구약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을 볼 때, 각자의 믿음의 색깔은 달랐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경주했다고 생각한다.

한나 (Hannah)

연대순으로 처음인 한나 (Hannah)를 보면 그녀는 사무엘사에서 나오는 제사장 사무엘의 어머니, 일명 기도의 어머니로도 통한다. 아들을 얻기 위해 성전에 와서 (사무엘상) 하나님께 애원하며 서원한 여자였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아들을 주셨다. 그녀는 기도할때 서원했던대로 젖을 떼 후, 어린 아들 사무엘을 엘리제사장에게 맡기고 절기마다 새 옷을 만들어 성전에 가져가는 등 하나님께 어린 사무엘을 온전히 맡기었다. 그녀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는지 그 후 칠명이나 되는 자녀를 주셨다. 자식없는 여자의 저주받은 것 같은 죄의식으로 부터 결국 한나는 해방을 받았다. 흔히 약속을 하고도 이익을 얻은 후에는 변경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킨 믿음의 여인이었다.

요게벳 (Jocbed) 출애굽기 6:20

하나님의 종, 모세의 어머니, 별로 그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레위족속 남자와 결혼하여 석달 동안 갓난아이인 모세를 몰래 키우다가 결국 바구니속에 넣어 나일강변에 띄워보내고 딸 미리암보고 지켜보라고 했던 여인이었다. 애기 모세의 비범한 용모를 보고 숨을 죽이며 키웠던 그 아들은, 강변에서 목욕하는 이집트 공주에 의해 왕궁에서 자라게 되었다. 그 때 요게벳은 유모로 모세를 키우면서 히브리인의 선민사상을 얼마나 불어넣어 주었을까 상상이 간다. 그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문명, 문화의 첨단을 걷는 나라였다. 피타고라스의 삼각법이나... 모세가 그곳에서 받은 엘리트 교육은 후에 성막을 짓는 데도 하나님의 계시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의 근원이 되었을 것 같다. 또한 남자 인구만 육십 만이 넘는 이스라엘민족을 거느리고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그의 지도력, 갓난아이였을 때 부터 비범했던 그를 위해 영향력을 준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이 그 뒤에 숨어있지 않았을까.

라합 (Rahab)

이스라엘인들이 광야생활 후 가나안에 들어올 때, 라합은 예리고에 사는 기생이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자기집에 머무르게하고 무사히 떠나게 하는 것까지 도와준 것은 라합의 믿음의 확신 때문이 아닐까 한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능력의 일들을 소문으로 들었다. 홍해를 가른 그 능력의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러한 권능을 가진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라면 예리고를 함락하고도 남을 것이라는 믿음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식과 권속들을 보호하기에 최선을 다하고 business deal까지 약속해놓았던 것이다. 이영길목사님께서 “르호봇의 노래”를 말씀하실 때 라합은 이스라엘의 간판역할을 하였다는 뜻이 바로 예리고인으로 처음 이스라엘민족을 들어오게 하는 관문이 되게한 여인이 바로 라합이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이 여인은 후에 다윗왕의 증조할머니가 되는 명예와 함께 인간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영광도 얻게되는 믿음의 증거를 남겼다.

에스더 (Esther)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삼촌, 모르드게에 의해 양육된 아리따운 유대인 처녀였다. 그녀는 메데, 페르샤를 통치하는 왕 아하수세로 (Xerxes)의 새 왕후가 되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역사상 처음으로 한 귀하고 장한 여인이었다. 에스더는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삼촌을 바사왕국의 대신 역할을 하는 하만이란 고위층간부의 음모에서 구했고,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왕의 각인을 찍은 하만의 조서 때문에 학살될 뻔한 처지에서 유대인들을 구출한 여인이었다. 그의 믿음은 단호하고 확고한 것이었고, step by step의 적절한 방법을 써서 왕을 설득시켰고, 음모를 꿈꾸는 하만을 숙청하였다. 에스더의 차분하고 철저한 approach는 그녀의 삼촌 모르드게 한테 유대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삼일간의 금식을 먼저 요구했고, 자신도 시녀들과 삼일간의 금식 후에 왕에게 나가겠다는 것이었다. “죽으면 죽으리라” 얼마나 단호한 믿음의 결심인가. 그녀는 금식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의 준비로부터 시작해서 일을 행했다. 믿음의 사람들이 흔히 큰 일을 앞두고 금식을 하는 것을 보게된다. 왕후 에스더를 통해 온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되었고, 유대인들을 박해했던 많은 사람들은 각 곳에서 처형을 받게 되었다. 또한 그 승리와 기쁨의 날을 브림절 (Purim) 이라고 유대인 달력에 기록되어 있다. 한편, 이런 생각을 해본다. 에스더를 통해 유대민족을 구하려고 전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여 폐후되게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된 것이 아닐까.

한나, 요게벳, 라합, 에스더 모두들 구약을 빛낸 믿음의 여인들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위의 여인들처럼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여인들이 보스톤한인교회에서도 많이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의 기도

주민정 집사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1)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하루를 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현실은 팬데믹으로 막막하고 암담하지만,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렵고 힘든 길을 걸을 때 그 가운데 주님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따라 주님 편에 서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건강을 잃었을 때 우리들의 몸을 만드신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들을 거두어 먹이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친 일상 속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새 소망 갖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은 길이 아닌 주님 보시기에 복되고 아름다운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고 당신의 말씀이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삶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글로벌 희년 (Global Jubilee)

한승희 장로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For it is a jubilee. It shall be holy to you)” (레위기 25:12)



2003년은 우리 보스톤 한인교회의 첫 희년이었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50년을 단위로 세월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고, 제2의 희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축복을 만끽하는 참으로 감개무량한 해였습니다.

이제는 지나간 2020년 또한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보스톤 한인교회의 교인으로 출석한지 50년째인 희년의 해였습니다. 1970년 보스톤 유학생 시절에 본 교회에 처음으로 출석한 것이 었그제 일 같은데 벌써 5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 어머니교회에서 함께 신앙 생활을 하였던 수많은 교우들과 교역자들이 우리교회를 거쳐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또 매년 새 교우들이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수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세례를 받고 구원의 방주에 함께 오르는 것도 보아왔습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늘 함께 하시고 우리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2020년도 2월 말/3월 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과 온 세계에 무섭게 퍼져 나가고 고통과 죽음이 바로 눈 앞에 다가오는 한 해를 지내면서 많은 생각과 깊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의 재앙은 마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떠나오기전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여러가지 재앙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사들이 뒤에서 위협하며 추격하는 가운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 막혀있는 그 절박한 상황을 방불하게 합니다. 속박에서 자유로 임하는 길은 말할수 없이 어려운 재앙들이 먼저 지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2020년 4월 중순경, 온 세계가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위하여 lockdown을 하고 지내는 동안에, 기이한 일들이 세계의 곳곳에서 일어났는데 그 것은 대기의 오염으로 앞이 잘 보이지도 않았던 여러 도시들의 환경이 깨끗한 공기로 바뀌어져 전에는 볼수 없었던 먼 산들이 선명하게 보이고 자연이 아름답게 다시 소생하는 기적적인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맡겨 주신 이 지구를 우리는 얼마나 무책임 하게 착취하며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지 실감하게 하였습니다.

어쩌면 이 2020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내려 주신 ‘글로벌 희년 (Global Jubilee)’ 이 아니었을까요? 돈과 부를 우상화 하고 안식이 없는 24/7의 삶을 추구하는 현대의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팬데믹을 모두가 함께 체험하게 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이 안식은 인간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 모두 꼭 필요한 것임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명하신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희년을 잘 지키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모든 인간들에게 팬데믹을 통하여 보여 주신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특별히 희년을 잘 지켜야 하는 이유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우리에게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희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See the Glory of God

심동근 전도사

“Lord, if you had been here, my brother would not have died. But even now, I know that whatever you ask from God, God will give you.” (John 11:21)

3/18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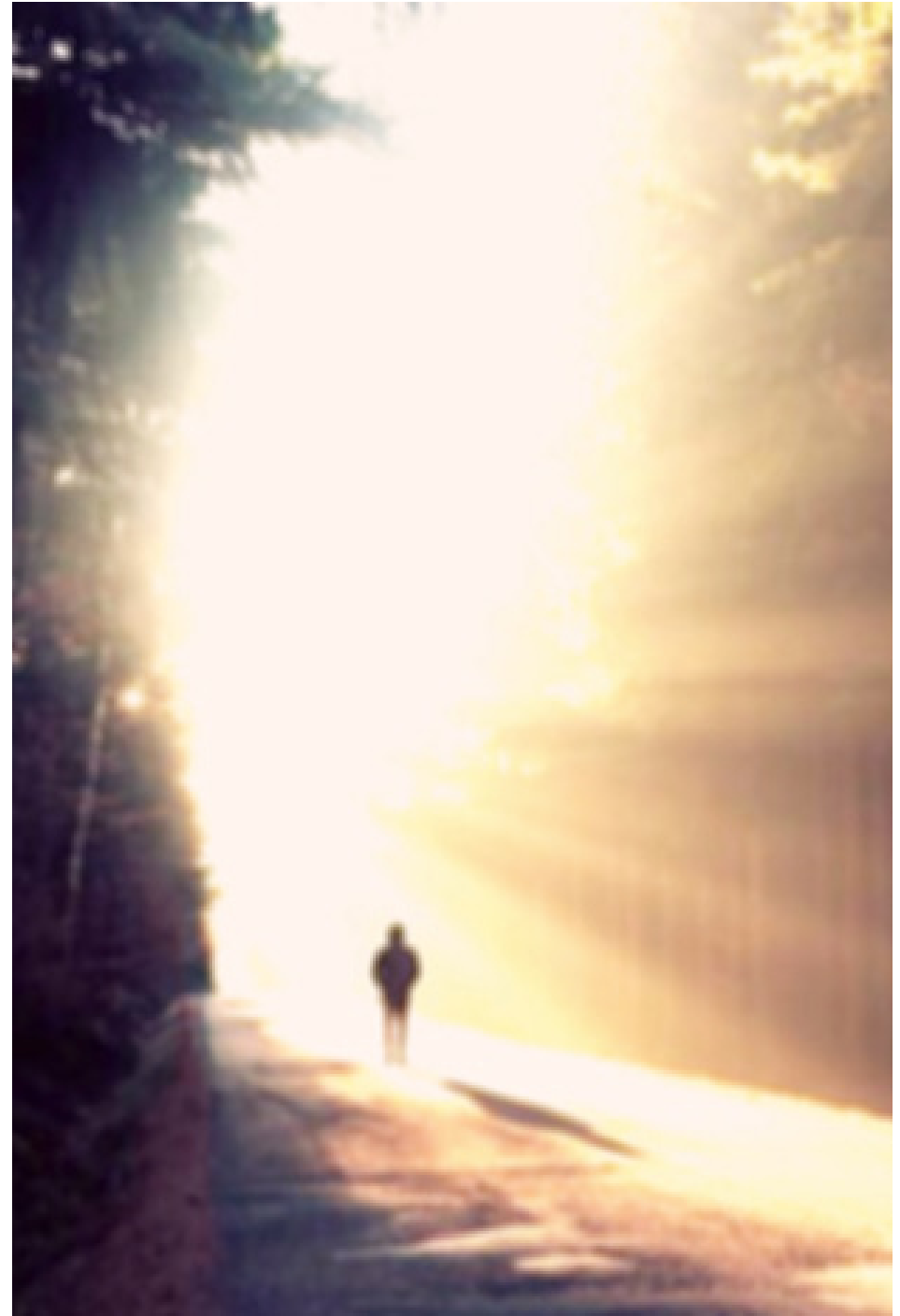
The journey of life throws at us all sorts of things. Some of these life events are more pleasant than others, and some less desirable. People attempt to avoid suffering and death at all costs, but predicament seems to be an inseparable part of human experience. The bible tells different ways people respond to these undesirable situations. John 11:21, in particular, captures Martha’s response to Jesus when she faces the death of her beloved brother. The verse suggests that Martha certainly wants something; she wants no death for her brother. However, at the same time, her faith wants to say that anything is possible with Jesus.

These opposites pull us in different directions. We want to avoid suffering and pain. At the same time, we are gravitated towards hope. We want to dwell in the darkness to see the light. Martha is in darkness when she says, “Lord, by this time there will be an odor, for he has been dead four days.” Nevertheless, she saw a glimmer of hope when she sees Jesus.

To this Martha, Jesus says, “Did I not tell you that if you believed you would see the glory of God?” Jesus’ words clearly state that our faith leads us to see the glory of God. The glimmer of hope can lead us to light in the darkness. Something that pulls us and encourages us to dwell in the darkness reveals God’s glory.

Every year, the season of Lent invites me to this space of dwelling and reflection. In past years, I have tried to avoid the heaviness and gloomy feelings associated with Lent. I wanted to be satisfied and only that. I wanted to lack nothing. However, when I tried to construct my life this way, I didn’t need the cross. There was no genuine spirit of the celebration of Easter because there was nothing to celebrate. I built the wall around me. It was the wall meant to protect me, but it also stopped God’s grace from reaching my heart. Unlike Martha, I did not expect to see Jesus at the tomb.

Seeing the glory of God begins from dwelling in space—space of silence, loss, and darkness—, progresses with Jesus’ dramatic entrance to the scene of Lazarus’ death and ends with Jesus’ triumph over death. As we hold on to our glimmer of hope in this season, may our faith sustain and guide our vision for the light that is coming.



Heavenly God, in these troubling times, may we never question your goodness, and your control over everything in this world, Amen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Because He lives)

고경진 집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

3/19 (금)

어느날 찬송가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새 171장)에 감동을 받았지요.

특히 영어 원문 가사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인생 전체를 축약했으며 인생곡으로 추천”한다고 어떤 분이 영어 가사를 설명하며 말합니다. 나의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1절: Got sent His son, they called Him Jesus;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네, 그들은 그를 예수라고 불렀네;
He came to love, heal and forgive;
사랑하고, 치료하고, 용서하기위해 그가 오셨네;
He lived and died to buy my pardon,
나의 죄값을 치루기 위하여 사시고, 죽으셨네,
나에 대한 죄 용서를 희생에 치르고 획득하시기 위하여 사시고 죽으셨네,
An empty grave is there to prove my Savior lives.
나의 주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텅빈 무덤이 있네.

후렴: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직면할 수 있네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공포가 사라지네;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그분이 미래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때문에,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그리고 바로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삶은 살 가치가 있네.

2절: 생략

3절: And then one day I'll cross the river;
그리고 어느날 언젠가 강을 건너게 될 때;
I will fight life's final war with pain;
나는 싸울 것이네, 삶의 마지막 전쟁을 고통과 함께;
And then as death gives way to victory,
그리고 죽음이 승리에 굴복하는 그 때,
I'll see the lights of glory and I'll know He lives.
나는 영광의 그 빛을 보겠네, 그리고 나는 알겠네, 그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위의 한글 해설은 유튜브 영어 선생님의 해설입니다)

찬송은 곡조있는 기도라고 하지요. 눈을 감고 조용히 가사를 묵상하며 찬송을 부릅니다.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고, 감사하는 마음, 위안과 평안함이 생깁니다.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와 담대함이 생김을 경험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살아계심을 다시금 깨닫고, 힘과 용기와 위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새벽의 속삭임

윤만강 권사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누가복음 24:48)



3/20 (토)

새벽 조용한 이른아침.

밖에서 하이얀 눈이, 방 안에서 퍼지는 아름다운 피아노 찬양곡에 맞추어 춤추며 위로하듯, 속삭이며, 미소 지으며, 샬포시 내려와 아픈 땅을 어루만지며 감싸고 있다.

2021년에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시작하도록 하신 새벽기도를 드리고 있다. 볼티모어 베델교회의 새벽 6시 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다.

나의 시어머님이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하시던 모습을 부러워하며, 나도 그러리라 수도 없이 다짐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좌절과 혼동과 두려움속에, 어둠 속에 갇혀있는 제자들에게,(나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잘 이해되었고, 읽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었다)그들 가운데 오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눅 24:38,39)

제자들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고, (눅 24:42)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눅 24:48)

이 얼마나 아름답고 완벽한 부활인가. 주님께서는 영 뿐 아니라 육체의 완전한 부활을 보여주셨다.

가난하고 고통과 죄악이 넘치는 이 아픈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의 영과 육체의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고 새롭게 단장한 아름다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는 아침이다

이 모든 일에 증인으로 이 세상 구석 구석에서 눈물과 땀으로 주님 섬기셨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증인들과 함께 증인된 나도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이 Pandemic으로 아픈 계절에 깊이 깊이 주님을 배워가고 싶다. 아직도 찬양에 맞추어 하이얀 눈 송이가 조용히 아픈 땅을 어루만지고 있다.

아버지여, 이 땅에 당신의 증인들을 일으키시어 이 아픈 땅을 고쳐주소서, 아멘.



순금 같이 되어

이영길 목사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욥기 23:10-17)

욥이 사는 공간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 공간에서는 어떻게 상처받지 않은 자처럼 사랑하는 역사가 벌어지고 있을까요? 11, 12절 말씀입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고 아내의 조롱과 친구들의 멸시 가운데 살았으며 아울러 욕창으로 고생했습니다. 수많은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욥의 반응은...? 스스로 언제나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을 늘 귀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은 자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욥의 모습입니다.

한편 욥은 위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13,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은 하나님의 사랑 곧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자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고난의 시간에도 함께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욥은 고난의 공간이 바로 성소임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소는 곧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한 번도 상처받지 않고 사랑하는 공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순금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이런 일이 많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공간 안에서 매일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순금’이라고 표현하셨을까? 순금하니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되어서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 40년이 막 시작한 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순금으로 우상 곧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광야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순금으로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반면 욥은 고난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서 자신이 순금으로 되어 간다는 확신 가운데 고난을 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위대한 삶의 공간을 성전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스스로 순금이 되어 간 것입니다.

저는 얼마전 읽은 헨리 나우웬의 글에서 바로 순금은 이런 것이 아니겠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공은 힘과 통제력과 존경할 만한 태도에서 나온다. 성공한 사람은 창조적 에너지를 지니고 있고, 그 에너지를 발휘하고 통제할 능력을 갖고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보상과 명성이 크게 뒤따른다. 그러나 열매는 연약함에서 나오고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 예를 들면 어린 아이는 상처받기 쉬운 연약함 속에서 잉태된 열매이며, 공동체는 서로 상처를 보듬는 가운데 생겨난 열매이고, 친밀함은 타인의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자라난 열매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을 서로서로 일깨워준다.”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한 광야라는 성전에서 성공을 구했을 때는 순금으로 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위대한 삶의 성전에서 고난을 말씀으로 순종하며 상처받지 않은 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였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욥이 얻은 순금이 아닐까요?

곧 성공과 열매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공은 자신을 위한 순금입니다. 곧 우상입니다. 열매는 남을 위한 순금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는 자신을 위한 순금을 향하여 달려 가던 삶에서 다시금 남을 위한 순금 남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되기 위함이 아닐까요?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소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그 성소 안에서 필요한 단련도 받고 또한 상처받지 않은 자처럼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위대한 성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 안에는 서로 상처받지 않은 사랑이 가득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기쁨을 얻습니다. 서로 보듬는 곳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입니다.



To Hope

무명인

“Let us hold fast the confession of our hope without wavering, for he who promised is faithful” (Hebrews 10:23)

3/22 (월)

To Hope
Through the times when to hope feels like folly
To Smile
To the world with His hope every day
To Live
Every day with the strength that He gives us
To Warm
Every life that we meet on the way

To See
Every wonder he's planted around us
To Hear
His voice even when we cannot see
To Sing
Through our troubles in praise and in gladness
To Share
Out those songs to the places we reach.

To Seek
Out His will and his calling each moment
To Find
In His purpose the treasure we seek
To Love
As He loved and to offer our moments
To Serve
As He served us, with love, on our knees.

To Pray
For the people who suffer around us
To Ask
For the faith to hold on as we pray
To Know
Who He is and to trust in His promise
To Hope
For His coming, that glorious day.

Dear Lord, help us to live these days with hope in our hearts and a smile on our faces, Amen.

코로나 팬데믹에 우리가 둘러 싸여 있을지라도

김정선 장로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이사야 58:8)



3/23 (화)

어머님같은 권사님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양로원에 계신 연로하신 권사님이 산 소마스크를 하고 격리 치료를 받다가 결국 소천 받으셨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가슴이 아프다.

코로나 팬데믹 (COVID-19)이 우리를 꼼작 못하게 둘러싸고있다.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의 공격에 세계의 모든것이 멈추어 섰다. 전세계에 1억이 넘는 감염환자, 2 백만명의 죽음. 미국에서만도 2천5백만 환자에 거의 42만명 이상의 죽음, 벌써 10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Jan 2021)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작아지고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본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이 환란에서 구하여 주소서!

무기력하게 죽어간 영혼들과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지금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을 치유해 주옵소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선을 지키고 있는 First Responders, 의사, 간호사, 연구자 및 모든 의료 전문가, 그의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절망에 빠진 모든분들, 노약자, 허약자,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 두려움에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몸과 마음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2천만 이상의 실직자, 수많은 문을 닫은 small business등, 미국 경제 대공황을 능가하는 환란이다. 주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감당할 수 있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갑자기 돌아가신 집사님과 권사님의 장례식도 교회에서 치루지 못했고 Wake도 없고 가족에게 위로의 조문을 할 기회도 없었다. 코로나19가 지나간 후 추도예배를 드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보스톤한인교회도 Youtube channel로 online 예배를 드린다. 3세대가 같이 제단을 쌓고, Bilingual로 예배를 보는데 절기에 맞춰 성찬식도 드린다. 목사님과 소수의 방송관계 집사님들 만이 교회에 나오시고 찬양팀, 성가대, 성경봉독 모두 remote또는 녹화로 조심스럽게 진행된다. 예배가 끝나면 Online 성경공부가 Zoom으로 진행되는데, 일주일에 한번, 비록 화면으로 만나지만 기다려지는 시간이다. 언젠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 Fellowship의 소소한 행복을 기대하면서, 역시 일선에서 이 모든 사역에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동네 거리가 아주 한산하다. 길건너 사는 손주들도 학교가 문을 닫아, 집에서 온라인으로 공부, 과외활동도 온라인이다. 할머니가 맛있는 한국 음식을 만들어 딸 집 앞에 두고 오고, 딸은 시장에서 보아 온 그로서리를 할머니 집 앞에 놓고 간다. 팬데믹 불행중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소소한 행복의 가치를 다시 느끼게 되었다.

이 어려운 시기 하루하루를 주님께 기대어 이겨내고 우리 모두 팬데믹 터널 끝에서 건강한 얼굴로 만날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Blessings!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이 환란에서 구하여 주옵시고 하루하루를 주님께 기대어 이겨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3/24 (수)

택함을 받은 충성된 종

홍영희 권사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놓으라” (창세기 24:2)

창세기 24장의 아브라함의 늙은 종(창 15:2에 나오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일 것이라고 추정함)이 그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택함을 받고, 그의 명을 받들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택하여 데리고 오는 과정을 묵상하며, 주인을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보며 깨닫고 배운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택하여, 아들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땅에서 택하지 말고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택하라고 종에게 맹세하게 하였고, 또한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창 24:7b)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주인의 굳건한 믿음을 알게 하고 보냈을 때, 종은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이 주인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충성하였다.

그는 먼저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내가 우물 곁에 서있다가 물 길러 온 한 소녀에게 청하여 나로 물을 마시게 하라 했을 때, 마시게 하고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는 마음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이었으며, 종은 다시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고 또 기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종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다.

리브가를 만난 후 종은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신중을 기하여 리브가의 가족관계와 혈통을 알게 되었고, 그 후에 이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이 때에도 주인을 생각하며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시라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며 감사기도를 드렸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로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낮은 자로 사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신 주님을 생각하게 되었다. 너도 이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다. 머리로 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에서 실천하라는 말씀으로 들려왔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살기 위해서 나는 지속적인 결단과 노력과 성령의 도움을 구하여야 한다. 먼저 주인에게 신임받는 사람이 되어, 내가 섬기는 주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기도하고, 주인을 위하여 할 일을 놓고 먼저 기도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일을 신중하게 행하고, 내가 아닌 주인만이 높임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늘 깨닫고 실행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와주소서.

사랑의 주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연합하기에 힘쓰며,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사는 이유

김동숙 집사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17)



3/25 (목)

좋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목숨을 살려주시고

또 새로운 날을 맞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저 받은 인생이라 헛되이 살지 않겠습니다

전체로 보면 저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저 같은 존재가 감당하고 해야 하는 일들이 있지않을까요 주님께선 이세상 또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산을 옮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저 나의 주변에서 남들과 언쟁하고 다툼을 일으키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지요 그 또한 내 안의 이기심만 내려 놓는다면 가능하지 않는 일도 아닙니다.

서로 조금씩만 이해하고 양보하면 되는 믿음만 있다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만이 해야할 일이 있으며 또는 내일이면 또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들 만이 내일이라는 또다른 날을 선물 받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어제의 어떠한 세상에 큰 업적을 남긴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오직 소중한 오늘 이 시간이 다시 만들어지지 않는 지금이라는 이 순간을 참으로 아름답게 소중하게 보내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돈을 잃어버렸을 땐 아쉽고 아깝고 안타깝고 자신이 허술하고 멍청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을 낭비하고 잃게 되면 손해보는 많은 것에 비해 너무도 관대한 우리를 참으로 알팍하고 어리석은 존재임을 들어내는 부분입니다

무엇이 소중한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알지못하고 그저 살아 있으니 사는 수동적인 삶을 살지 않기를 이야침에 기도드립니다. 주어진 시간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와 경외를 드리고 매사에 최선을 다해 사는 적극적인 삶을 사는 제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어서 사는 저가 아니라 깨어 숨쉬며 사는 오늘을 만들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형태의 삶의 조각들이 만들어져 오늘을 만들겠지요 그 조각 조각들을 잘 만들어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 가겠습니다. 함께 가실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고백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한줄 기도: 주님이 허락하신 이하루가 제게 살아있는 시간들이 되어 주님의 사랑의 기운이 이웃에게도 퍼져나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포로

손영권 집사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예레미야 29:4-5)

3/26 (금)

저는 1995년 12월 29일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사랑하는 고국을 떠나 이곳 미국 땅으로 이민자의 신분으로 왔습니다. 지난 25년을 되돌아보면, 저의 신분 상태에 관계없이, 한국에서 살고 있는 저의 친지와 친구들처럼 ‘온전한’ 한국 사람으로도, 주변에 널린 ‘평범한’ 미국 사람으로도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Korean-American 반반씩 살아온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예29:1)’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70년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할테니 그때까지 그 곳에서 포로가 아닌 그곳 거주민처럼, 집도 짓고 텃밭도 만들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번성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하루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할텐데 여기에 정착하여 살라니...

그 당시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그의 삶의 터전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그 포로된 상황 그리고 그 바벨론 땅이 얼마나 싫었을까, 그리고 고국인 이스라엘 땅으로 하루 빨리 돌아갈 수 있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시며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터를 잡아 열심히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보다 더 큰 절망을 느끼지 않았을까 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저도 처음에 한국을 떠나 미국 캘리포니아로 왔을 때에는,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가 살겠지,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이곳 보스톤으로 왔을 때에는, 언젠가는 캘리포니아로 돌아가겠지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예29:11)’라고 말씀해 주시며 절망하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원래 포로라는 것이, 이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곳’에 잡혀가 있는 것이라면, 원하지 않는 ‘때’에 살고 있는 모습도 일종의 포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벌써 1년이 훌쩍 넘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상황 어찌됐던 이 상황이 무사히 넘어가기만을, 이런 new normal이 도무지 적응이 안되고 하루 빨리 예전처럼 되돌아가기만을 바라는 마음. 그러면서 이렇게 나를 팬데믹의 포로로 만든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이 임시이고 모든것이 정지해 있는 듯한 나와 주변의 모습들...

아마도 우리 모두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하루 빨리 종식되기를 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시간적 포로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보다는,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제가 그렇게 살때, 저에게도 평안, 미래, 희망의 편지를 써주시며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을까 살짝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의 일부 일초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뜻하신 일들을 해나가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수 있도록 인도주세요, 아멘.

평안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다

이성지 집사



3/27 (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9)

얼마 전 ‘평안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교사이자 기독교 저술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긴 말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괴로운 상황에서 벗어나면 평안할 것이라 여깁니다. 저 또한 기도의 많은 부분이 현재의 문제와 고난이 없어지길 간구하는 것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실상은 현재의 고난이 사라지더라도 또 다른 형태의 크고 작은 어려움이 곧 찾아와 나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곤 합니다.

지난 해를 돌아볼 때 가장 감사한 일은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신 일입니다. 저는 결혼한지 7년이 되어 첫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이라 기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난산과 이로 인해 출산 후유증을 얻었고, 팬데믹으로 제대로 진료와 산후조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가장 감사해야 할 순간에 후회와 불평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힘든 출산의 과정에서 의료진들을 통하여 한치의 오차없이 생명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복 기간 동안 주변의 많은 지체들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도우셨습니다. 저의 교만함과 어리석은 마음으로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허락하신 순간에도, 그 모든 과정 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깨닫지도 감사하지도 못하는 죄인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때때로 저는 삶에서 무엇인가를 얻었기 때문에 또는 힘든 고난을 피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함께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제가 누리는 기쁨은 온전한 평안과 감사로 이어질 수 없음을 봅니다. 낮아진 마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요 감사의 제목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멸시를 당하리라.”

이영길 목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2-13)

1921년, 열아홉 살의 터키 청년이 모스크바 대학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사상에 접한 시인은 터키로 돌아와 신문과 잡지에 글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라는 이유로 곧 체포되었고, 28년 형을 언도받고 12년을 감옥에서 지냅니다. 이 기간 동안 수많은 시를 썼으며, 공산국가뿐 아니라 서양 국가들에서 잇달아 번역됩니다. 감옥 안에서 쓴 시를 전에도 한 번 소개해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진정한 여행>이라는 시입니다.

나집 히크메트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리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향해 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시인은 감옥 안에서 앞날이 가장 불투명하고 불분명할 때 도리어 진정한 여행이 시작되고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엇 보다도 최고의 시는 쓰이지 않았고 최고의 날은 아직 살지 않은 날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주님은 앞으로 당신이 받아야 할 고난을 구체적으로 아셨을까요? 누가 어떻게 당신을 조롱하고 얼마나 많은 채찍을 맞으며 누가 당신의 옷을 나누게 될지를 다 아셨을까요? 구체적으로는 아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아실 수 있어도 아실 것을 포기하셨을 것입니다. 도리어 앞이 보이지 않는 고난 앞에서 비로써 인류 역사의 진정한 여행은 시작이 되는 것을 느끼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막연한 고난 속에서 진정한 인류의 여행은 시작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오는 고난을 통해 최고의 시가 쓰이고 노래가 지어질 것을 소망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고난과 멸시가 난무한 세계로... 고난은 곧 영광의 세계로 이어지는 여행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고난과 멸시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때가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그래서 주님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2020. 4. 5. 종려주일 설교 중에서>

내 모습 이대로...

심진희 집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하리라” (마태복음 11:28)



저는 육아 전문 오은영 박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처음 해보는 육아, 정답이 없는 육아를 하며, 오은영 박사님이 나온 프로그램과 책들을 찾아보고 읽곤 했습니다. 그 안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어떤 말을 해줘야 하는지 많이 배웠습니다. 제 주변에 든든한 육아동지들 만큼이나 의지하고 많은 도움을 받은것 같습니다. 오은영 박사님께서 전하는 메시지를 잘 들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투정을 부릴때에 아이가 어떤 감정을 표현하든 먼저 그대로 인정 해주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가 떼를 쓰거나 투정을 부리려고 하면, ‘왜 그러는거지? 뭐가 잘못된거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아이가 지금 표현하는 감정은 인정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아들(딸), 화가 나는구나. 그래, 그럴땐 짜증이 날수도 있겠다.” 라고 먼저 얘기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나서 안되는 것과 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런 노력 후 아이들은 좀 더 빨리 안정을 찾고, 아이들과의 소통이 더 수월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른 모습입니다. 참 다른 생각과 감정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 이든 어떤 마음이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해주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모습 그대로를 감싸주시고 사랑해주십니다. 그런 그 분의 사랑을 느낄때에 요동치던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찾습니다. Covid-19 이후 우리 모두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제한되고 불확실한 미래에서 살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화도 날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감정을 쏟아내고, 내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찾고, 회복하며 힘을 얻고, 살아나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변한 세상 속에서 변치않으시는 하나님만 붙잡게 하시고, 평안과 회복이 있게하소서, 아멘.



나의 몸 기도

퍼온 글

3/30 (화)

[머리] 하나님! 오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생각이 되게 해 주십시오.

[눈]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군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해 주시고, 누군가와 나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사람이 나를 통해 순수한 삶을 꿈꾸게 해 주십시오.

[코] 하나님! 오늘 내가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가 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하게 해주시고, 숨을 내 뱉을 때 마다 내속의 부정적인 것들을 쫓아내게 해 주십시오.

[입] 하나님! 오늘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되게 해 주시고, 오늘 내가 먹는 음식이 성찬이 되게 해 주십시오.

[발] 하나님! 오늘 내가 걷는 발걸음 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새겨지도록 해 주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평화를 가져가는 발걸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손] 하나님! 오늘 내가 손을 내밀어 누군가를 붙잡을 때 나를 통해 그의 손을 잡아 주시고, 나를 통해 생명의 기운이 그에게 흘러 가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박신영 장로



3/31 (수)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예레미야 애가 3:41)

소그룹 성경공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공부하면서,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이 생각났다. 평생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셨던 장로님은 매일 새벽 4-6시, 오후 4-6시 하루 두 번, 네 시간씩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셨다고 한다. 가파른 산길에 지은 구국기도실의 아치형 기둥에 “조국이여 안심하라, 온 겨레여 안심하라”라고 적혀있다. 일제시대와 6.25한국전쟁을 거치며 망한 나라의 국민을 위해 기도하며, 새로운 소망을 꿈꾸던 김용기 장로님의 모습은, 실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던 유다의 마지막과 많이 닮았다.

지금은 세상이 참으로 어려운 때다. 고국에서 들려오는 어지러운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냉전이후 국제적 질서가 새로운 충돌을 하는 때에 열강들 속에서 통일을 이루어 내야하는 대한민국의 앞 날이 어렵고, 또 자유를 잃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북의 동포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어렵고, 더욱이 2020년 COVID-19으로 전세계 수백만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 이제 사회와 경제의 온전히 회복을 손꼽아 기다리는 어려운 때이다.

이와같은 때에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말씀한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라고. 이 어려운 때에 사순절을 맞으며, 이번 사순절은 특히 걱정하고 중보기도에 열심하길 다짐해 본다.

주님, 거짓과 탐욕에 빠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소서, 아멘.



기도 들것

이소은 집사

“수 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2: 1-5)

[보스톤 한인교회 마리아 중보기도회]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예수님께 병든 친구를 데려가면 나올 수 있다는 간절하고 급한 마음에 중풍병이 든 친구를 들것에 메워 가지고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그 들것을 달아 내려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얼마나 급하고 간절했을까?

얼마나 믿음이 크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친구가 그 중한 병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얼마나 용기가 있었으면 지붕을 뜯고 들것을 내릴 생각을 했을까?

몇 년 전 교회에 모여 2주에 한 번씩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함께 중보기도하는 보스톤 한인교회 마리아 중보기도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 기뻐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기도 제목을 듣고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다 내놓고 기도해도 될까? 등등의 사탄이 종종 이용하는 의심, 수치심같은 것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모임에 참석하면 할수록 성령님께서서는 서로를 위해 지속적이고 열심으로 기도해 주는 멤버들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 따위는 중요하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의 아픔과 약함을 알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회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각자가 각처에 따로 있어도 늘 서로의 기도제목에 대해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중풍병자 친구를 메워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친구들처럼 우리 기도멤버들은 많은 가족, 친구, 친척 또는 지인의 지인들을 기도 들것으로 싣고 와서 기도합니다. 기도 들것으로 싣고 나온 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제목에 그 분들 대신 주님께 아뢰고 도와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된 것을 나누며 힘을 냅니다.

어느날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지쳐서 기도가 도저히 나오지 않을 때, 기도 멤버들께 “오늘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 대신 제 기도제목에 기도해 주세요.”라고 카톡방에 글을 남겼습니다. 다들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열심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1시간도 안되어 제가 다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탄은 온갖 방법으로 제 마음을 흔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친구들을 제게 붙여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제게 기도의 친구들 용사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늘 함께 기도해서 아버지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돌보아 주세요, 아멘.

빌라도의 재판

윤 원길 장로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누가복음 23: 11-12)



4/2 (금)
성금요일

작년 말 어느 권사님으로 부터 볼티모어 뱀엘 교회의 새벽 예배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동참하기로 하였다. 어느날 설교말씀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

유대 공의회에서 예수님 심문을 마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끌고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갔다. 죄명은 백성을 미혹한 소요죄, 로마에 세금납부 거부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한 죄였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메시아, 구원자로서 영적인 왕이었는데, 악랄한 자들이 이같이 음해한 것이다. 빌라도는 정치적인 지략이 뛰어나서 예수님의 모습이 혁명가나 세상 군왕의 모습이 아니고, 인자하고 약간 안쓰러운 듯한 모습이라 종교 지도자들을 의심하였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부터 오신것을 알고, 빌라도는, 그 지역의 분봉왕되는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떠맡기었다. 빌라도는 이미 지쳐있었고, 헤롯왕은 예수님을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고, 이적을 구경하고자 하였다. 그는 전에 세례요한을 죽인 안디바 헤롯이다. 그가 호기심으로, 오락으로 예수님께 질문했으나 아무 대답도 안하시자 그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모욕하기 위해 빛난 옷을 예수님께 입혀 빌라도에게 되돌려 보냈다.

유대왕 헤롯과, 로마의 유대 총독 빌라도는 전에는 서로가 긴장 관계에 있었고 원수였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는 일로 친구가 되었다. 시편2편 2절에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라는 예언이 응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어울리나? 자신말에 동의하고 마음이 통하는 자이다. 예수님의 친구는 누구인가?

우느자. 병든자, 간음한 자 등 상대방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하셨다. 우리도 예수님 마음 같이 소자에게 물한그릇 떠주고, 아픈 자의 친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유월절에는 죄수 한사람을 석방해주는 관례가 있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 바라바중에 민중들이 예수님을 놓아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누구를 놓아주랴 물었으나, 저들은 외치기를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강하게 소리쳤다 (바라바는 민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자였다) 우리는 볼들어야 할 것과 내려 놓아야 할 것을 알아야 하는데, 빌라도는 정치적인 욕망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고 세번이나 말하고도(4절 14절 22절) (또 아내의 권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죄판결을 내리지 못했다.

그리하여 그후 2000여년 동안 성도들이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그의 수치되는 이름을 부른다. 구원과 영생이 최종 우리의 소망이므로, 성경에서 모든 문제의 답을 찾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시험이 와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준으로 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줄 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받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악마의 세력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구원의 감격

이재혁 집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8)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사람들의 삶은 반짝 반짝 빛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 내 삶을 돌아보니, 아무 것도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참 작고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주님의 삶을 바라보니, 나는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픈 곳으로, 버려진 곳으로, 초라한 곳으로, 주님은 늘 낮은 곳을 향해 계셨습니다.
 주목받지 않는 삶을 위해서,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삶을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보같은 마음을 가졌었는지.
 아무 것도 이룬 것 없어 보이는 내 삶에 불만족하면서 투덜거리고,
 세상과 비교하며, 더 갖고 싶어하고, 더 빛나고 싶어하고, 더 높아지고 싶어하고...
 이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셨을지 생각하니 부끄러웠습니다.

주신 것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것들은 그냥 다 내팽개쳐두고서,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지 못한 것들에만 시선을 두며 살았습니다.
 어처구니없는 교만함에 사로잡혀, 내가 늘 돋보이고 싶어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험담했구나, 그게 다 내 추악한 욕심이었구나,
 그 죄를 떠올리니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 나를, 그래도 주님은, 사랑한다 해주셨습니다.
 어느 순간 나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안아주시고, 끝없는 사랑을 퍼부어 주시고,
 그렇게 모든 삶의 기준을 뒤바꿔 놓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기도를 하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말만 계속 되뇌이다가 기도를 마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하신 주님, 그 사랑을 절대 잊지 않는 제자 되게 하소서, 아멘.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영길 목사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1-10)



제가 매년 사순절을 준비할 때마다 집 가까이 있는 천주교 서점에 갑니다. 새로 나온 묵상집들을 구입합니다. 올해도 몇 권을 구입하였었습니다.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려고 한 묵상집을 펴서 부활절을 위한 글을 읽으려고 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것까지 있고 부활절 묵상 글은 없었습니다. 지난 25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제 마음에 느낀 것이 있습니다. 상실감. 뭔가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물론 정확히는 토요일 까지가 사순절이니 부활절에 대한 글은 넣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활절이 없는 사순절은 저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묵상집을 펴 보았습니다. 마지막 부활주일에는 어떤 글이 담겨 있나 보았습니다. 제목부터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Lost and found’.
 두 묵상집이 저에게는 하나의 멧세지를 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 묵상집에는 은연중 말합니다. ‘Lost.’
 다른 묵상집은 말합니다. ‘Lost and found.’

두 여인도 이와 비슷한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여인들은 주님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찾은 주님께서 영똥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잃고 상실감에 젖어 있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만나자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순간 여인들은 또 어리둥절해집니다. 사실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 근처 어딘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실감 속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빨리 그들의 상실감을 없애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왜 그들을 다시 갈릴리까지 위험한 먼 길을 오게 하시고 거기서 만나자고 하시나요?

잘 아는 대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을 시작한 곳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싹트기 시작한 곳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 바로 이곳에서 제자들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이미 주님은 당신의 깊은 뜻을 제자들을 부르는 새로운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새롭게 제자들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스승과 제자가 아닙니다. 형제로서 사역을 시작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짓궂게 장난하는 형제지간이 되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오래전부터 마음 속에 갖고 있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서는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처럼 태어남의 경험을 하였고 모든 사람들처럼 즐거움도 누렸고 모든 사람들처럼 고난도 겪었으며 이제 죽음까지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형제와 자매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길 원하셨습니다. 부활의 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함께 부활의 몸을 입은 형제 자매가 되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부활의 주님은 이제 형제들과 함께 멋지게 재미있게 웃기게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온 세상을 웃기고 계십니다. 주님은 갈릴리에서 폭소를 터뜨리시며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모두 부활의 몸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함께 웃으며 갈릴리로 가십시오.

말씀을 거둡니다.

북 아일랜드의 어느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려 산소 호흡기를 차고 생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구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무도 입원실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가족도 목사도... 그런데 입원실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청소부였습니다. 청소부가 들어오는데 한 줄기 햇빛을 보는 것과 같았다고 합니다. 청소부가 말을 겁니다. 여러 격려의 말을 해 줍니다. 이 청소부는 14년간 나이지리아에서 선교했던 선교사였습니다. 이제 고향에 돌아와 청소부가 된 것입니다.

청소부는 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그 후 차차 회복되어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간증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웃기십니다. 선교사도 되시고 청소부도 되십니다. 우리 모두의 형제 자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2020.4.12 부활주일 설교 중에서>